

코로나 위기와 가치관 변화

연구 기관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 지 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 출 | 문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코로나 위기와 가치관 변화”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연구기관명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지범(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 구 원 : 심재만(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인철(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옥태(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김솔이(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구성 7

제2장 코로나19 경험과 일상의 인식 9

제1절 경험과 인식, 그리고 코로나19

1. 경험과 인식에 대한 행위이론적 정의 11
2. 비정상적 위기 상황에서의 경험과 인식 12

제2절 코로나19 경험

1. 감염 '걱정' 13
2. 감염 '가능성' 14
3. 감염 '가능성' 대비 감염 '걱정' 15
4. 감염 '걱정' 평균 16
5. 코로나 '증상', '검사', '양성' 17

제3절 일상의 인식

1. 경제사정 18
2. 정신건강 19
3. 사회관계 20
4. 방역수칙 준수 21
5. 삶의 만족도 27
6. 삶의 결정요인 29
7. 미래 자녀들의 생활수준 31

제3장 코로나19와 사회적 배제 33

제1절 외부집단에 대한 배제: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제2절 외부집단에 대한 신뢰

제4장 코로나19와 정책관 43

제1절 국민들의 정책관 변화

제2절 국민들의 국가자긍심 변화

제3절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

부록 53

1.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 개요 55

2.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2차) 빈도표 56

3.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2차) 설문지 91

참고문헌 109

1. 문헌 자료 111

2. 기사 자료 113

표 목 차

[표 3-1]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변화	40
[표 3-2]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변화	41
[표 4-1] 향후 10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45
[표 4-2]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구도	46
[표 4-3] 정책분야별 정부지출 확대 요구도	47
[표 4-4] 경기부양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도	48
[표 4-5] 부문별 국가자긍심의 변화	49
[표 4-6]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1	50
[표 4-7]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2	51

그림 목 차

[그림 1-1] 가치의 10가지 유형	5
[그림 2-1] 성별 코로나19 감염 걱정	13
[그림 2-2] 연령별 코로나19 감염 걱정	13
[그림 2-3] 성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14
[그림 2-4] 연령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14
[그림 2-5]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대비 감염 '걱정'	15
[그림 2-6] 코로나19 감염 '걱정' 평균	16
[그림 2-7] 코로나19 관련 '증상', '검사', '양성'	17
[그림 2-8]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18
[그림 2-9]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19
[그림 2-10] 사회관계 인식	20
[그림 2-11] 사회관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경험	21
[그림 2-12] 성별 방역수칙 준수	22
[그림 2-13] 연령별 방역수칙 준수	22
[그림 2-14] 성별 공공건강 대 개인의 인권과 자유 유보	23
[그림 2-15] 연령별 공공건강 대 개인의 인권과 자유 유보	23
[그림 2-16] 성별 개인의 인권과 자유존중 대 공공의 건강	24
[그림 2-17] 연령별 개인의 인권과 자유존중 대 공공의 건강	24
[그림 2-18] 성별 건강상 안전을 위한 자유 포기	25
[그림 2-19] 연령별 건강상 안전을 위한 자유 포기	25
[그림 2-20] 성별 자유를 위한 건강상 위험 감수	26
[그림 2-21] 연령별 자유를 위한 건강상 위험 감수	26
[그림 2-22] 전반적 및 분야별 삶의 만족도	27
[그림 2-23] 건강상태, 재정상태, 사회관계 만족도의 개인별 평균(X축)과 개인별 분산(Y축) 교차	28
[그림 2-24] 삶의 결정요인	29
[그림 2-25] 성별 삶의 결정요인: 나 자신	30

[그림 2-26] 성별 삶의 결정요인: 힘센 타인	30
[그림 2-27] 미래 자녀들의 생활수준	31
[그림 3-1]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35
[그림 3-2] 연령별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36
[그림 3-3] 종사상 지위에 따른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37
[그림 3-4] 가족이나 친구의 감염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별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38
[그림 3-5]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	39
[그림 3-6]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	40

요 약

본 연구는 위기 상황에서의 가치관(Values in Crisis)이라는 세계 1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비교조사연구의 한국조사 연구이다. 한국은 5월에 1차 조사와 10월에 2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2차 조사를 토대로 1차 조사 그리고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이용하여, 코비드-19라는 전 지구적 대유행병의 위기적 상황에서 한국인의 삶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제2장의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면, 연령과 성별에서 감염 가능성과 감염 걱정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다. 장년층에서 감염 걱정이 낮고, 감염 가능성도 낮았다. 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감염 걱정은 많았지만, 감염될 가능성은 낮게 보아, 감염 가능성이 감염 걱정을 가져오지 않았다. 예상대로, 경제사정이 악화됐는데, 실직, (자영)사업장 폐쇄, 고용지위 하락이라는 경험 중 하나라도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약 12%나 되었다. 더불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관계에서 가끔 교제부족을 느끼면서 동시에 가끔 고립/소외를 느끼는 비율이 23%나 되었다. 제3장의 사회적 배제에서, 5월 조사와 비교하여 외국인의 한국유입에 대한 태도가 14%p(허용: 5월 46% 대 10월 32%) 감소하였는데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부정적 의견이 큰 폭으로 변화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5월과 비교하여 10월에 낮아졌다. 제4장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10년 전에는 “물가 상승 억제”(51%) 그리고 “국가의 질서 유지”(25%) 순이었지만, 2020년 두 번의 조사에서 “국가의 질서 유지”(38%)가 “물가 상승 억제”(34%)보다 높았다. 다양한 영역의 국가자긍심을 살펴보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성취’가 가장 높고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가 가장 낮았다. 2013년과 비교하면, ‘경제적 성취’에 대한 자긍심은 낮아졌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코비드-19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은 어둡다. 이 어두운 현실이 한국인의 가치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 한국사회 전반의 변화를 만들어낼지 추적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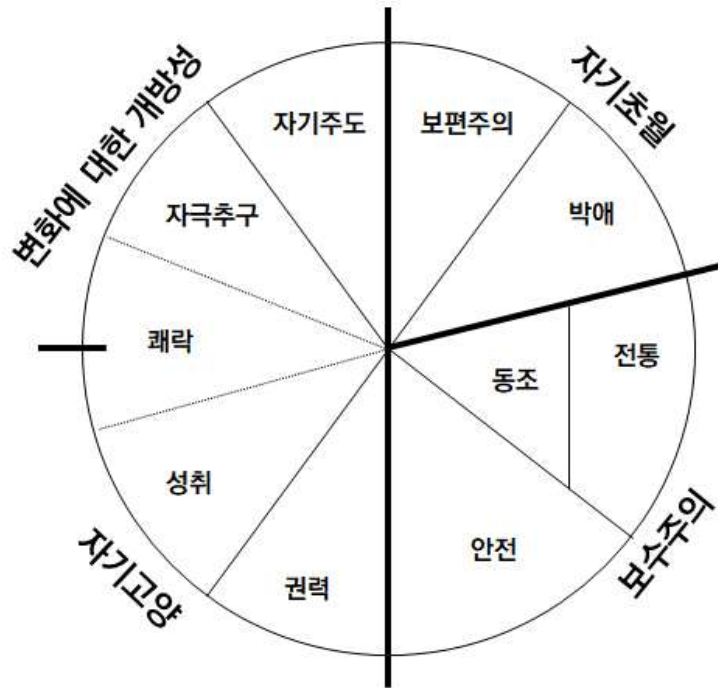
코로나-19라는 대유행병의 시대를 살고 있다. 20세기 이후 대유행병인 스페인독감, 에이즈,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대유행병이 있었지만 창궐할 때만 관심을 갖고 잊혀지는 것이 반복되었다(Honigsbaum, 2019). 한국에서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15년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위협 또한 잊혀졌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760만 명이 감염되고, 거의 170만 명이 죽었다는 점에서(12월 21일), 프리드만(Friedman, 2020)이 언급한 세상은 코로나-19 이전(Before Corona, B.C.)과 코로나-19 이후(After Corona, A.C.)로 나누어 질 것 같다.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되어 코로나-19라는 대유행병도 머지않아 사라지리라 예상하지만, 전 지구적인 코로나-19 대유행병 이후는 과연 어떤 세상일지 모두의 관심이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선진국의 감염자 및 사망자 숫자와 비교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 이후 5만 명이 감염되었고, 7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겼다. 투명한 코로나-19 현황 정보공개, 감염자 동선공개, 공적마스크 판매처 알리미 앱, 차에 탄 채 검사 받는 진료소 등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K-방역을 통해 정부는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충실한 역할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증가로 나타났다(Kye & Hwang, 2020). 동시에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감탄과 찬사를 불러 일으켰다. 질서를 지키며 마스크를 구입했고 마스크를 안경처럼 안면의 부착물처럼 쓰고 다니고 있다.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해외의 식료품과 화장지 사재기도 없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본받아야 할 국가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같은 날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미국에서 180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33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한국인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왜 미국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가? 왜 미국인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가?

문화 차이가 서구와 아시아의 코비드-19 대응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많은 미디어나 학자들이 한국의 코비드-19의 성공적 대응 요인으로 집단주의를 빈번히 언급하고 있고(Kang, 2020), 아시아 다른 나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An & Tang, 2020).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반면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코비드-19 상황에서 서구인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자유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 시책에 대한 수용도가 낮았고, 독립적으로 자기 신뢰를 통하여 코비드-19 감염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반면, 동양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존적 관계를 인식하며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정부 시책에 순응하며 정부가 개인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였다.

문화는 가치를 포함하는데, 가치는 문화의 이상형으로 간주된다. 개인 수준의 가치와 문화 수준의 가치가 있는데, 문화적 수준의 가치는 개인 수준의 가치 응답을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Hanel et al., 2018). 가치에 대한 설명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핵심반복항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유럽 국가에서 척도의 타당도가 검증된(Davidov, 2008) Schwartz의 인간가치이론에 기초한 가치묘사질문(Value Portrait Questionnaire, PVQ)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Schwartz(2007)는 가치를 바람직하고, 특정 상황을 초월한 목적이며, 우선순위가 있는 삶의 지침서로 정의하며(2007: 173), 인간 가치 이론의 10가지 기본적 동기유발 유형을 원형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1-1). 우선, 자기고양(self-enhancement) 대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 대 보수주의(conservation)의 2개의 대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된다. 대립적인 차원을 4가지 상위유형과 이에 해당하는 10개의 하위 가치유형(value type)을 살펴보면, 변화에 대한 개방성은 자기주도(self-direction), 자극추구(stimulation), 자기고양은 성취(achievement), 권력(power), 자기초월은 보편주의(universalism), 박애(benevolence), 보수주의는 동조(conformity), 전통(tradition), 안전(security)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고양 차원에 동시에 해당되는 쾌락(hedonism) 추구가 있다. 코비드-19 상황에서 가치가 대유행병의 전염을 줄이는 행동과 연결될 수 있는데, 가치초월과 보수주의는 초점이 사회에 맞추어져 있고 자기고양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은 초점이 개인에 있기 때문에, 코비드-19 상황에서 가치초월과 보수주의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개인들이 정부 정책에 잘 준수하며, 친사회적인 행동을 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Wolf et al., 2020).

[그림 1-1] 가치의 10가지 유형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혹은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려고 한다. 새로운 상황에서 기존의 가치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가치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지만(Sagiv & Roccas, 2017: 3), 가치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Schwartz, 2007: 169). 예를 들면, 미국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사건 이전과 비교해서, 자기초월적 가치와 보수주의 가치는 사회에 대한 걱정을 높여주었다(Frink et al., 2004). 또한,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이후 안전 가치는 증가하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왔다(Verkasalo et al., 2006). 즉, 국가위기상황 전후와 비교하여 국가위기상황에서는 안전 가치와 동조 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Fischer, 2017: 10), 놀랍게도, 2019년과 비교하여 안전과 생리적 욕구는 줄어들었지만, 자기초월 욕구와 인지적 욕구는 증가하였다(최인수 외, 2020: 15).

현재 국내에서 코비드-19 관련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책연구기관, 지자체는 지자체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코비드-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코비드-19로 인한 경제성장률, 고용 및 산업수출 등 경제적 영향력의 최소화나, 코비드-19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의료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코비드-19로 인한 위기의식과 도덕적 가치 변화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보호적 가치의 변화로 개인들이 안전, 질서, 권위, 균일성 및 순응주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외부집단의 신뢰나 관용 그리고 내부집단의 연대 초월성의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계급과 민족을 불문한 인류 보편적 위협으로 인간의 일반화된 인간성, 인류애, 인간의식을 방향으로 변화하고 이로 인해 외부 집단의 신뢰, 복수, 관용, 초월적 연대의 증가 가능성도 상존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연구들은 코비드-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일회성 조사에 국한되고 있으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과 도덕적 가치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조사된 자료와 연계·통합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상황에서의 가치(Values in Crisis, 이하 VIC)라는 국제비교연구의 한국연구이다. 위기상황에서의 가치 국제 비교 조사 연구는 17개국에서 3차례의 조사(1차: 확산 시점, 2차: 종식 시점, 3차: 종식 시점 이후 1년 후)를 수행한다. 이 조사는 코비드-19가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한다. Welzel과 연구진들(Welzel et al., 2020)의 VIC 연구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가치는 사회화의 마지막 연령인 25살 정도에서 굳어져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한 사회의 가치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평상시 급격한 가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비드-19는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극적인 사회 위기라는 점에서 가치 변화 및 안정성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코로나 대전염병이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말해, 이 위기의 각인 아래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은 얼마나 방대할까? 그리고 만약 이러한 변화들이 크다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마지막으로, 위기의 끝이 보이고 위기가 초래한 경제적 상황이 극복되면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지속 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가 이전의 설정된 가치로 되돌아갈까? 아니면 위기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론적 함의와 더불어 본 연구는 코비드-19라는 사회적 위기를 겪은 개인과 사회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여 향후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대응방안 모색에 활용하려고 한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전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설명한 제1장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코비드-19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와 타인에 대한 신뢰, 제4장에서는 정부의 역할 및 국가자긍심을 언급한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1차와 2차 조사의 개요, 2차 조사의 빈도표, 2차조사의 설문지를 제시한다.

제2장

코로나19 경험과 일상의 인식

제1절 경험과 인식, 그리고 코로나19

제2절 코로나19 경험

제3절 일상의 인식

1 | 경험과 인식에 대한 행위이론적 정의

사회학 행위이론(action theory)은 경험/인식을 포함한 온당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을 총체성 내지 중층성으로 이해한다(Shim, 2017; 심재만, 2020). 보편이론으로서 행위이론은 경험과 인식이라는 현재의 연구대상과 관련해서는 과학지식사회학의 몇 가지 전통과 공명한다. 과학철학/과학사회학자 토마스 쿤(Kuhn)의 패러다임론(Kuhn, 1962)내지 실용주의 철학자 찰스 피어스(Peirce)의 시각(Tavory & Timmermans, 2013)에서 보면, 인식/지식/앎은 언제나 역동적이다. 인문사회과학적 논쟁의 역사나 자연과학적 지식의 누적적/혁명적 발전의 방식이 그 예이다.

위기의 시대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는 당면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즈에서 가치(values)는 총체적인 것인 바(Parsons, 1935), 인식/지식/앎과 경험/실천/삶을 포괄한다(Martin & Lembo, 2020). 둘째, 인식/지식/앎은 경험/실천/삶을 담는 데에서 온전하다. 셋째, 인식/지식/앎에 경험/실천/삶이 배태되므로, 인식은 이미 경험/실천이 된다. 넷째, 이 인식과 경험의 주체는 동시에 대상이 되는 것인 바, 세상과 개인 양자 모두이다. 이에 바탕해, 이 장의 분석대상이 비로소 특정될 수 있다. 위기의 시대 가치 연구의 필수적 요소는, 세상과 개인 양자에 대한 총체적 이해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를, 후자와 관련해서는 ‘일상 속 개인’에 대한 이해를 다룰 수 있다.

2 비정상적 위기 상황에서의 경험과 인식

정상적 상황에서 세상과 개인은 대부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경험과 인식의 주체이자 객체인 세상과 개인이 겪는 경험과 인식의 과정은 부분적이다. 세상이 인식되고 경험되는 만큼 개개인이 인식되고 만들어지는 정도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뜻이 된다.

반면 코로나19와 같은 ‘비정상적 위기’(물론 이러한 정상-비정상의 구분 역시 분석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궁극에서 그 차이는 개념적 구별에 불과하다) 상황에서는 세상과 개인의 많은 부분이 인식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세상이 인식되고 경험되는 만큼 개개인이 인식되고 만들어지는 정도가 극대화됨을 의미한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기술적 방편으로 이 장은 다음과 같은 분석적 편의를 따라 진술된다. 본격적 이해의 작업은 보다 장기간의 자료와 다층적 분석기법을 사용할 추후의 과제로 둔다. 여기에서는 먼저 코로나19(‘세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삶(‘일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기술한다. 분석자료는 10월 있는 조사결과이다.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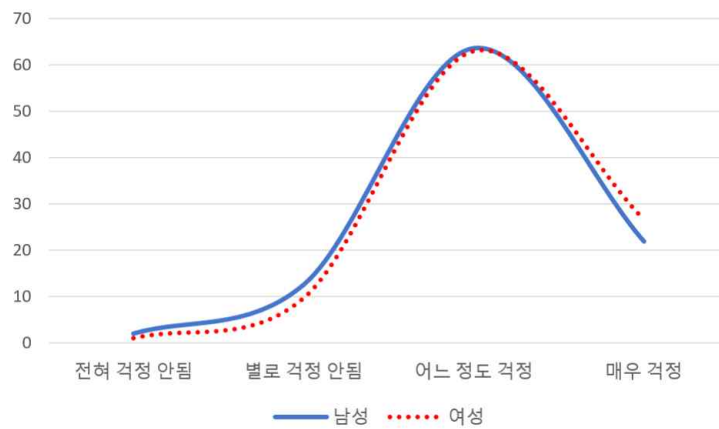
코로나19 경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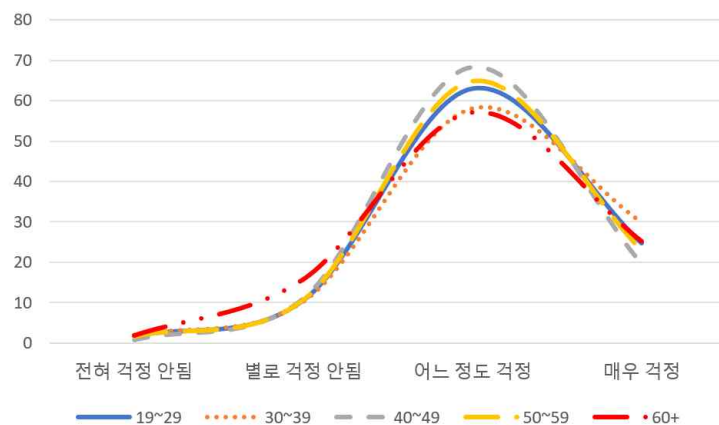
1 감염 '걱정'

남성에 비해 여성 집단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높다. 연령집단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에 비해 50대와 60대에서의 걱정 수준이 낮다.

[그림 2-1] 성별 코로나19 감염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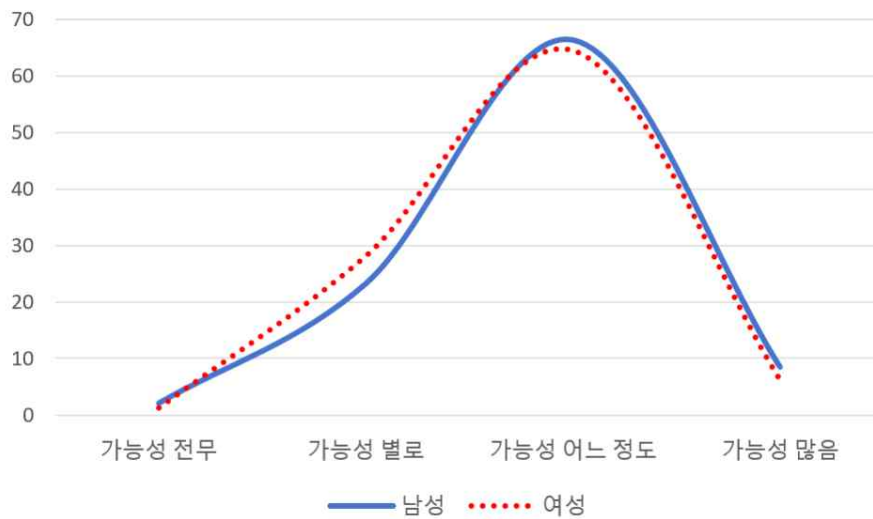
[그림 2-2] 연령별 코로나19 감염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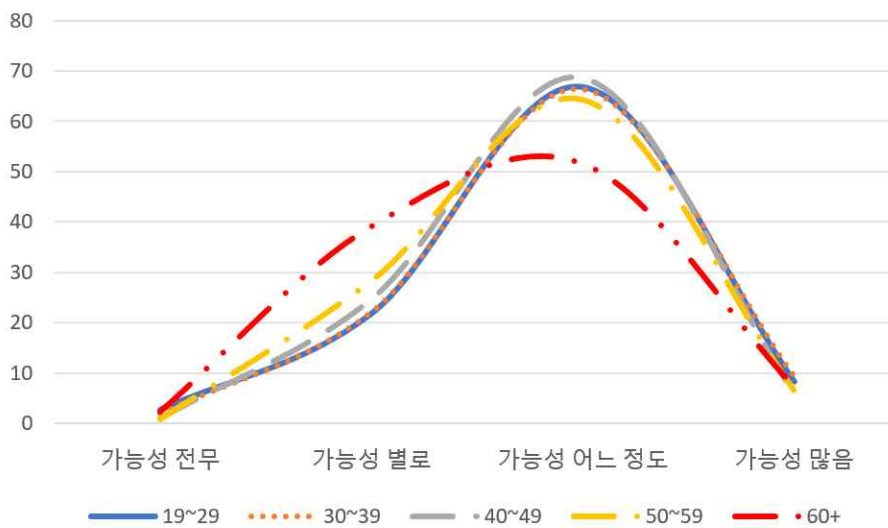
2 감염 '가능성'

남성에 비해 여성 집단에서 감염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연령별로는 노령층에서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림 2-3] 성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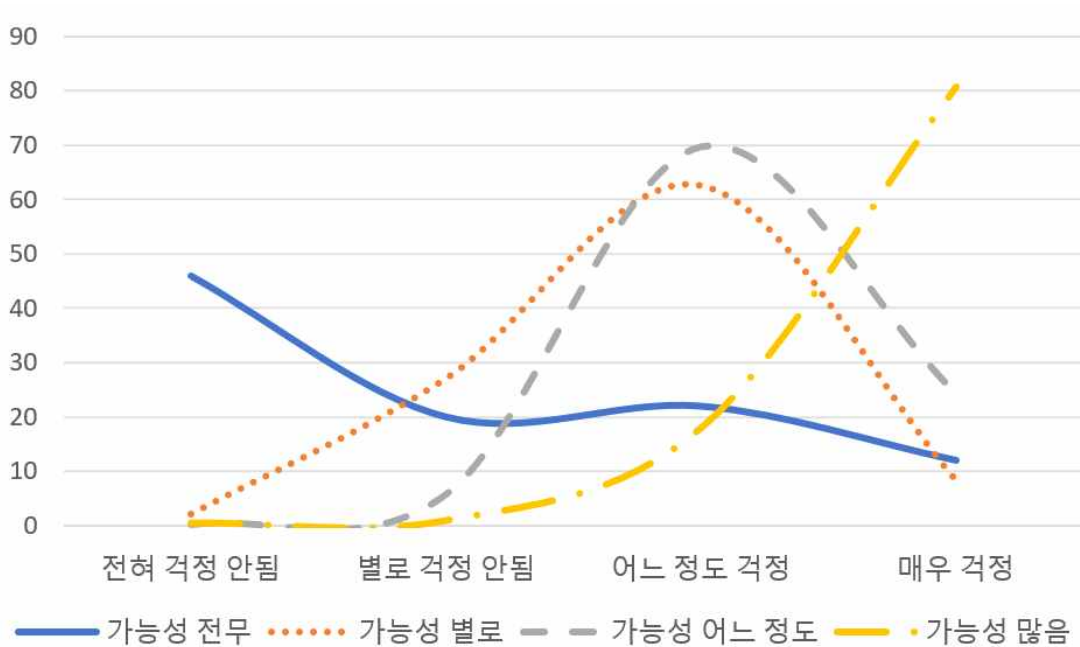
[그림 2-4] 연령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3 감염 '가능성' 대비 감염 '걱정'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감염에 대한 걱정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령층에서 감염 걱정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던 것은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인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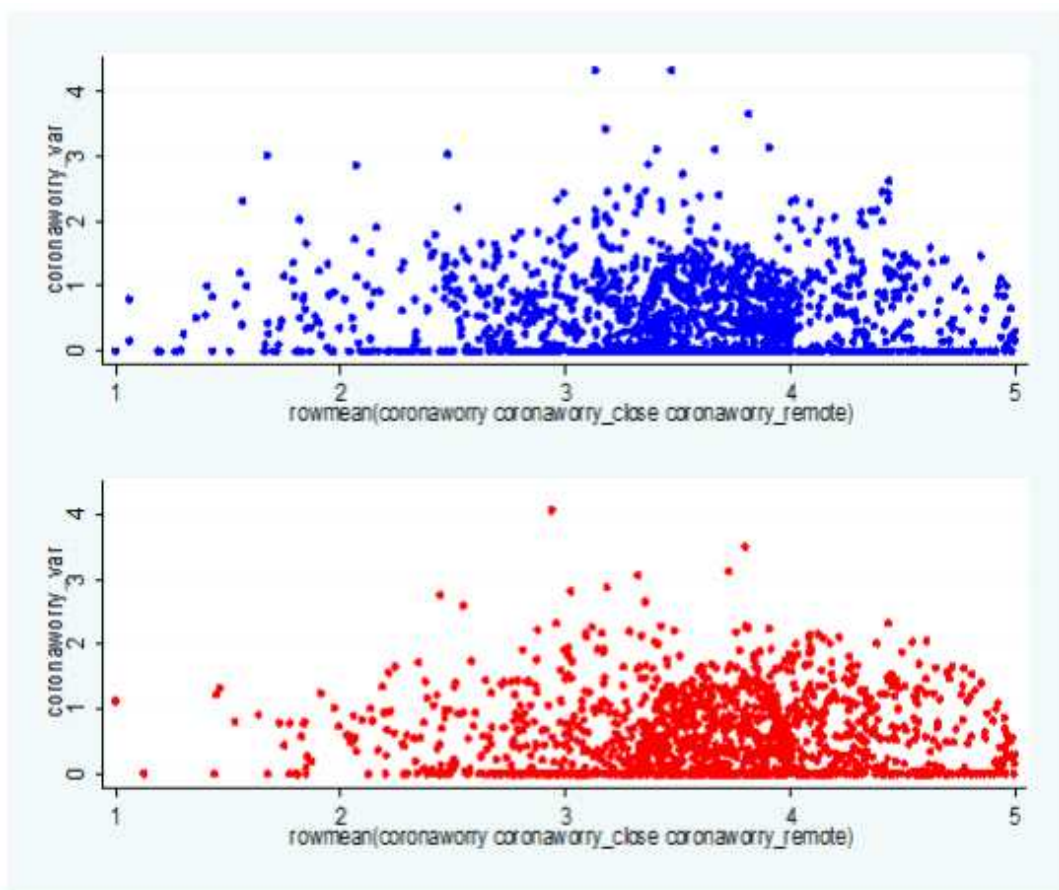
[그림 2-5]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대비 감염 '걱정'



4 감염 '걱정' 평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을 본인, 가족/친구, 일반 사람들 각각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평균(1~4점)을 보면, 앞서 본 바와 비슷하게 여성에게서 걱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그림의 윗부분이 남성집단의 응답 패턴이고 아랫부분이 여성집단의 응답 패턴이다. X축이 응답의 평균 값이고 Y축이 응답의 분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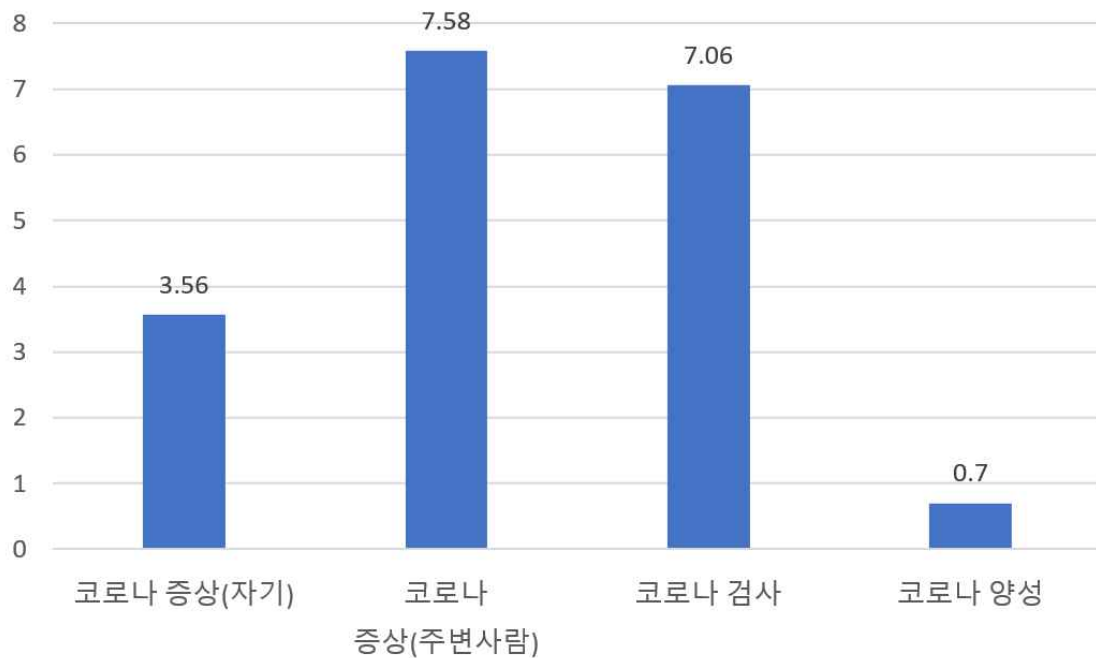
[그림 2-6] 코로나19 감염 '걱정' 평균



5 코로나 ‘증상’, ‘검사’, ‘양성’

코로나19와 관련해 경미하거나 심한 증상을 경험한 사람 비율은 3.56%(본인), 7.58%(주변사람) 등이다. 검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조사인구 대비 7.06%인데, 이는 질병관리청 발표 12월 16일자 전체 인구대비 누적검사자수 비율(7%)과 비슷하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0.7%인데, 이는 질병관리청 발표 누적확진자 비율(0.1%)보다 높다. 검사자 중 양성 판정 비율도 이 조사에서는 10%로 나왔는데, 전체 인구 대비 1.3%의 확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림 2-7] 코로나19 관련 ‘증상’, ‘검사’, ‘양성’



어떤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더 받는지를 살펴본 결과, 본인 혹은 주변사람이 증상을 겪을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검사 받을 확률이 높다.

제3절

일상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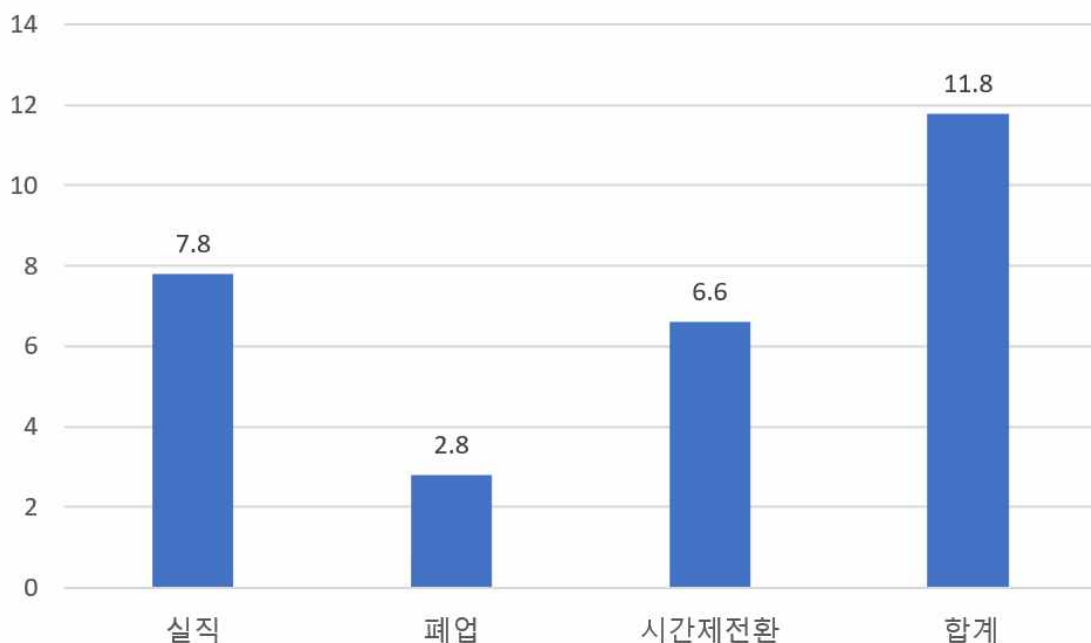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경제사정

코로나19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했는지 알아보았다. 실직, (자영)사업장 폐쇄, 시간제로 고용지위 하락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각각 7.8%, 2.8%, 6.6% 등이다. 5월 조사에 비해 수치가 조금씩 증가하였다. 셋 중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11.8%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확률은, 코로나 증상을 경험했거나 검사를 받았거나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또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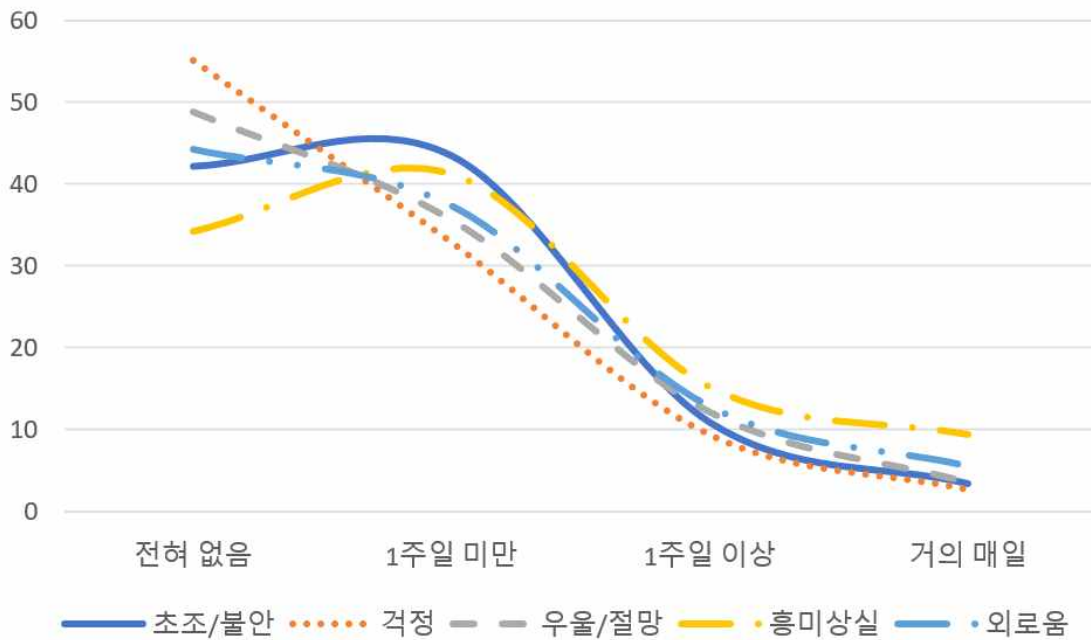
[그림 2-8]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2 정신건강

코로나 사태 와중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정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시점 기준 과거 2주 동안의 경험을 물었다. 흥미와 재미 상실, 외로움, 초조/불안, 우울감/절망감, 걱정 등의 순으로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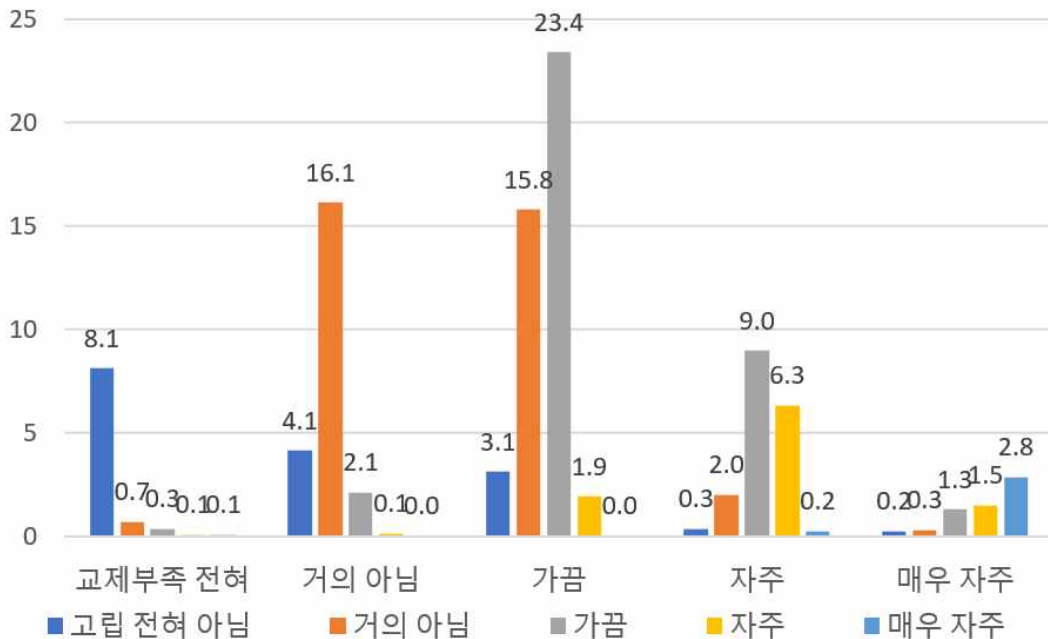


정신건강상 어려움은, 코로나 증상 경험자, 검사자, 양성 경험자, 걱정, 가능성 등을 겪는 사람에게서 큰 것으로 보인다.

3 사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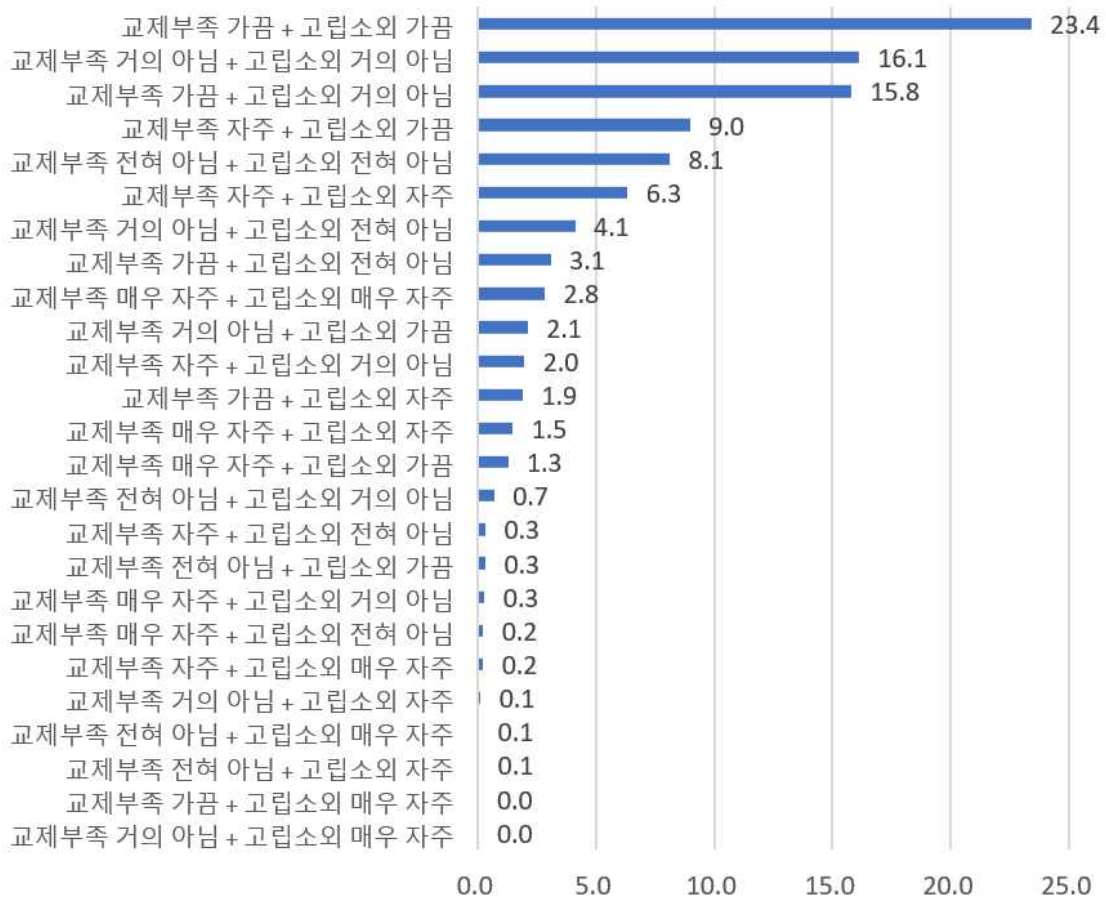
조사시점 기준 최근 4주 동안 사회관계 인식(교제 부족 정도, 고립/소외 정도)을 물었다. 교제 부족 정도가 클수록 고립/소외 정도도 크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두 측면 모두에서 “가끔”이라고 응답하는 중간 값을 기준으로 응답자 비율이 좌우 대칭을 이룬다는 점이다. 즉, 둘 중 어느 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엇비슷하게 섞여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관계 경험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10] 사회관계 인식



사회관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경험의 대칭성은, 응답자 비율 순으로 응답범주를 재정렬한 다음 그림에서 보다 손쉽게 드러난다. “교제 부족 가끔 + 고립/소외 거의 없음”(15.8%)과 “교제 부족 거의 없음 + 고립/소외 거의 없음”(16.1%)이 비슷한 수준으로 동시에 발견된다. 또 “교제 부족 가끔 + 고립/소외 가끔”(9.0%)과 “교제 부족 전혀 없음 + 고립/소외 전혀 없음”(8.1%)이 비슷한 비율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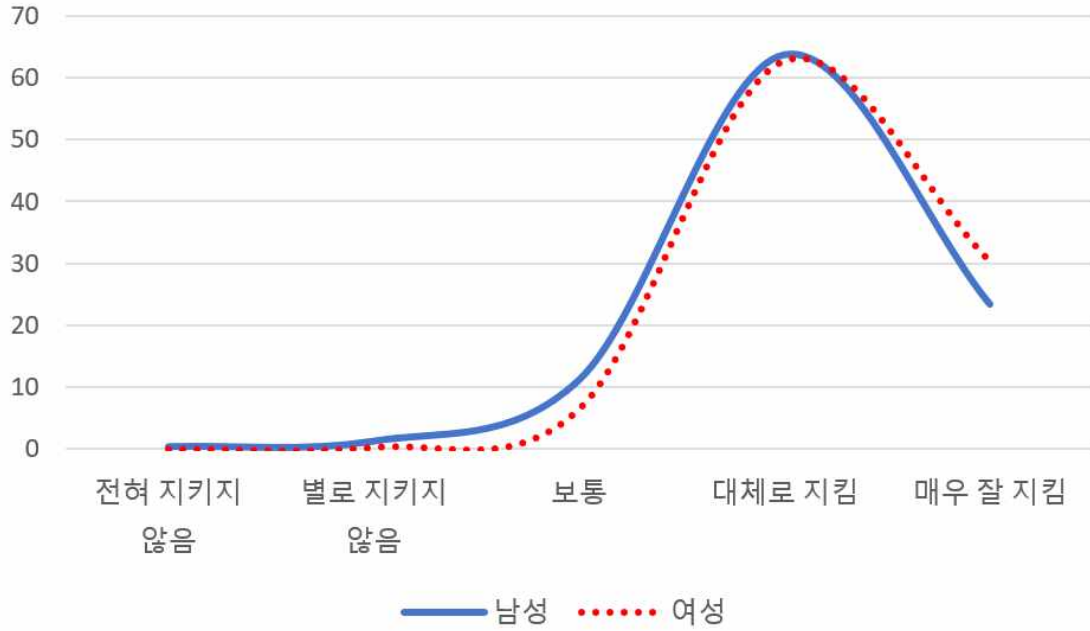
[그림 2-11] 사회관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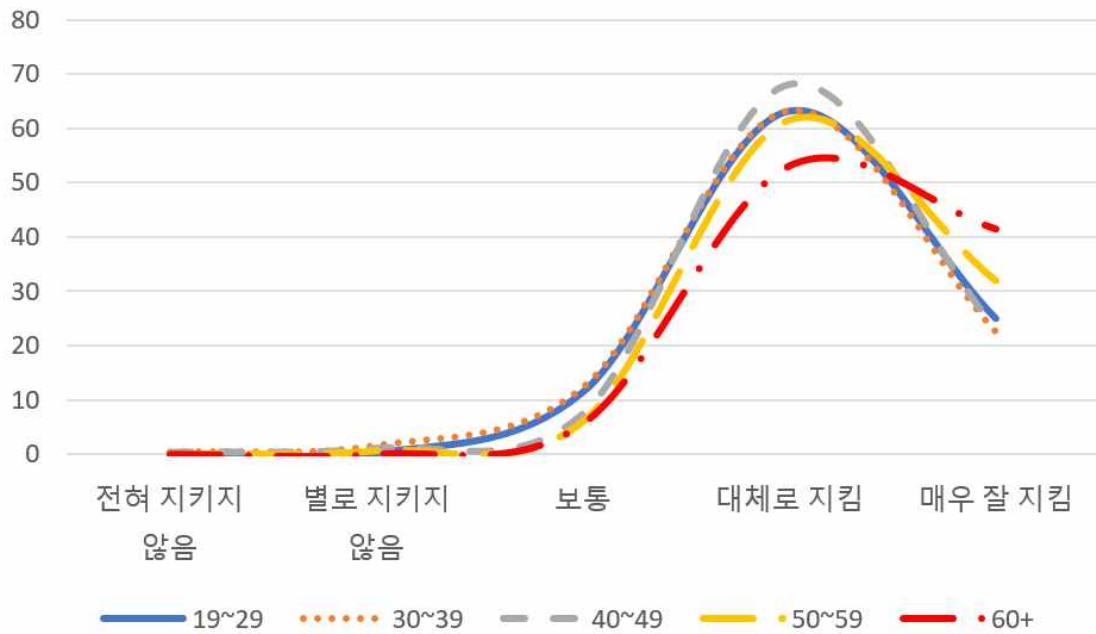
4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준수 정도는 여성 집단과 고령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매우 잘 지킨다는 응답 비율이 여성에게서 30.4%, 남성에게서 23.4%이다. 같은 응답이 60대 이상에서 41.4%, 50대에서 31.9%, 40대에서 23.0%, 30대에서 22.5%, 20대에서 25.0%이다.

[그림 2-12] 성별 방역수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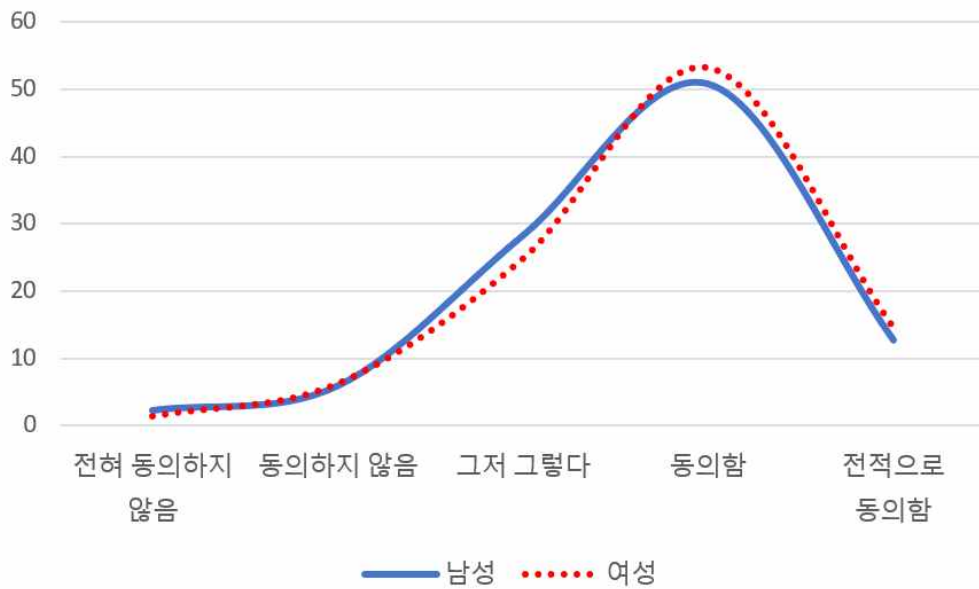


[그림 2-13] 연령별 방역수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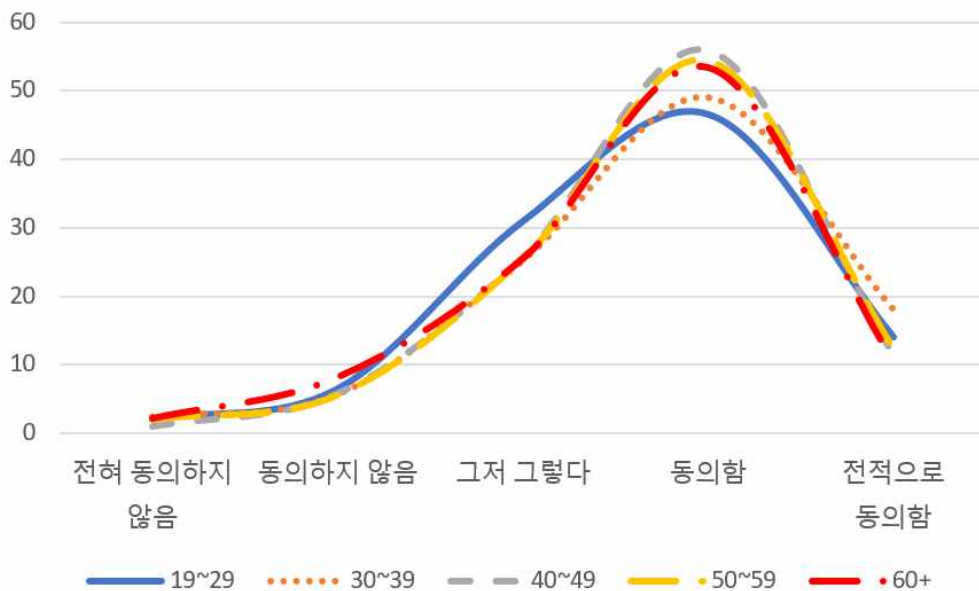


공공의 건강을 위한 개인의 자유유보에 여성은 남성보다 더 동의한다. 20대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공공의 건강을 위한 개인의 자유유보에 덜 동의하고 있다.

[그림 2-14] 성별 공공건강 대 개인의 인권과 자유 유보



[그림 2-15] 연령별 공공건강 대 개인의 인권과 자유 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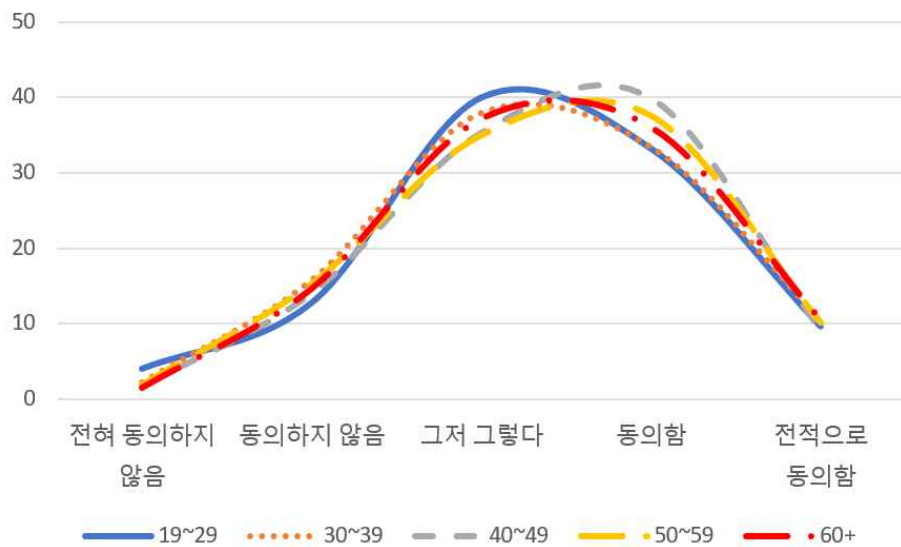


비록 공공의 건강을 위해 개인의 자유 유보에 다수(66%)가 동의했지만, 공공의 건강을 위해 개인의 자유의 존중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개인 자유의 존중에 더 동의한다. 20대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개인의 자유 존중에 덜 동의하고 있다.

[그림 2-16] 성별 개인의 인권과 자유존중 대 공공의 건강



[그림 2-17] 연령별 개인의 인권과 자유존중 대 공공의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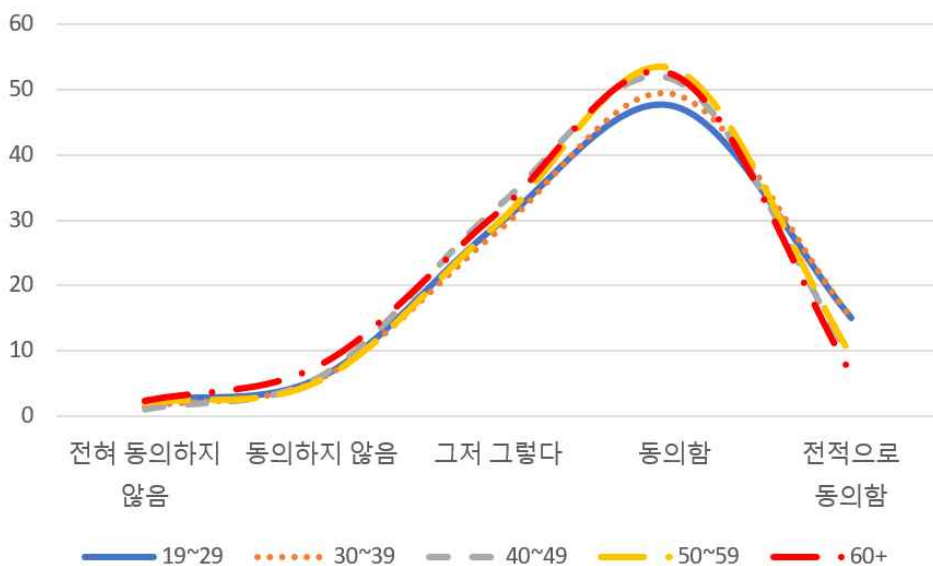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 안전을 위해 개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20대는 60대 이상과 비교하여 건강상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다.

[그림 2-18] 성별 건강상 안전을 위한 자유 포기



[그림 2-19] 연령별 건강상 안전을 위한 자유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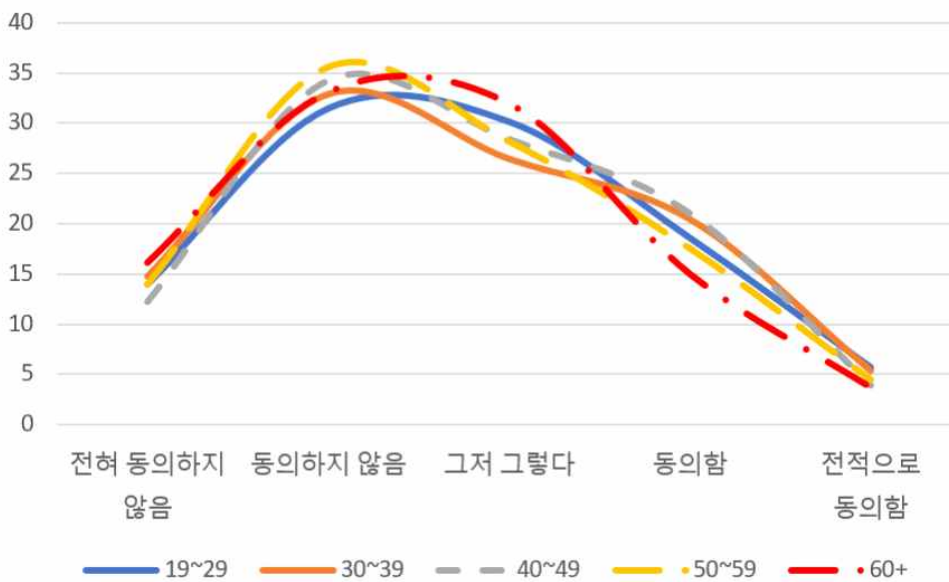


국민들의 소수만(24%) 자유를 위해 건강의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의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다. 20대, 30대가 노년층과 비교하여 자유를 위해 건강상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다.

[그림 2-20] 성별 자유를 위한 건강상 위험 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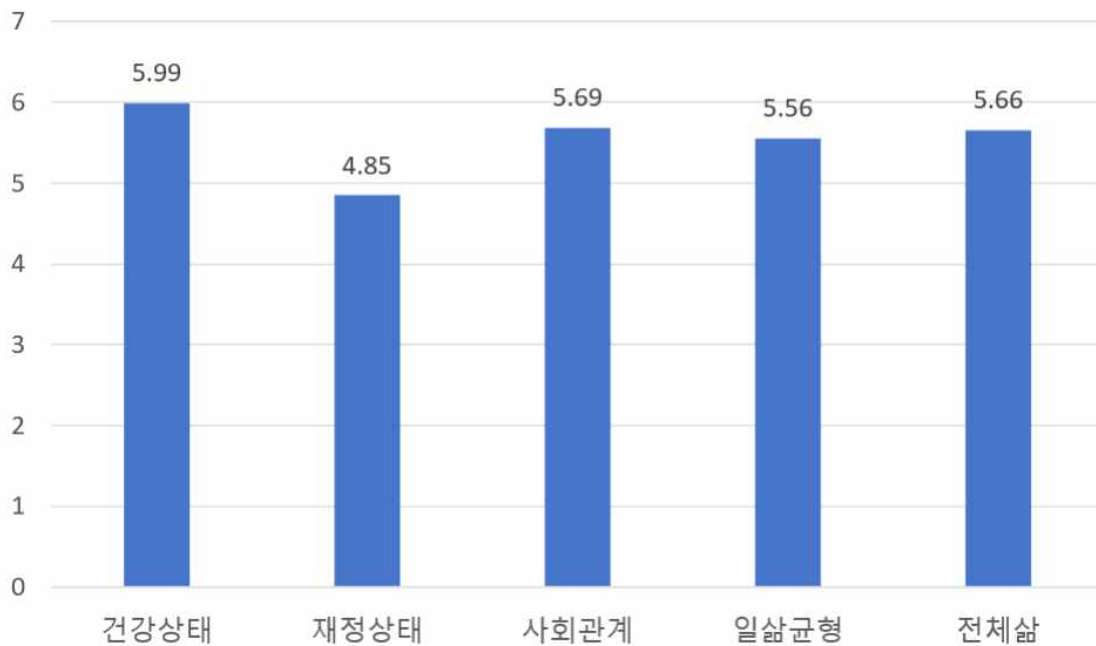
[그림 2-21] 연령별 자유를 위한 건강상 위험 감수



5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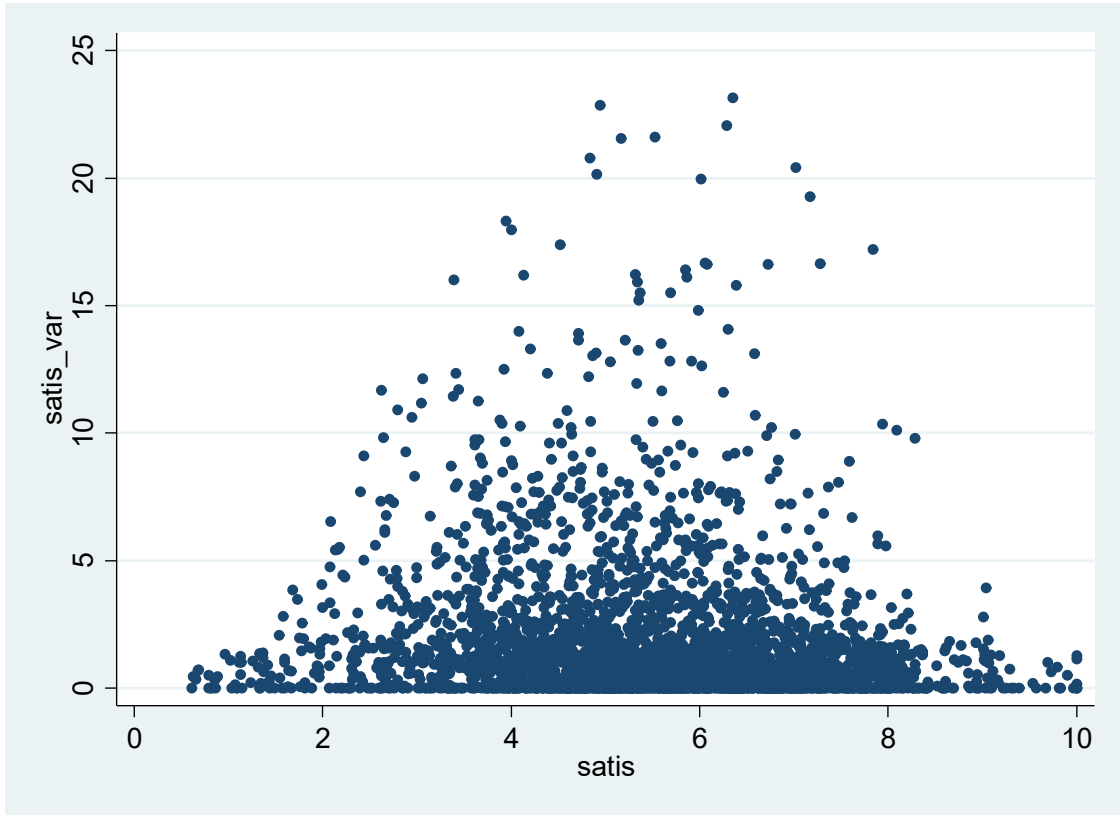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 와중 최근의 삶의 만족도(1~10점)를 분야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 재정상태 만족도는 전체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지 못한다.

[그림 2-22] 전반적 및 분야별 삶의 만족도



다음 산포도는 건강상태, 재정상태, 사회관계 등 세 분야 만족도의 개인별 평균(X축)과 개인별 분산(Y축)을 교차한 것이다. 만족도가 중간 정도인 개인들에게서 분야별 만족도 사이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만족도가 높은 이들 그리고 만족도가 낮은 이들에게서는 분야별 만족도 사이 차이가 적다. 즉, 어느 한 분야에서 크게 만족하면 나머지 분야들에서도 만족도가 높다. 반면 어느 한 분야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나머지 분야에서도 만족도가 낮다. 삶의 만족도의 양극화를 우려하게 되는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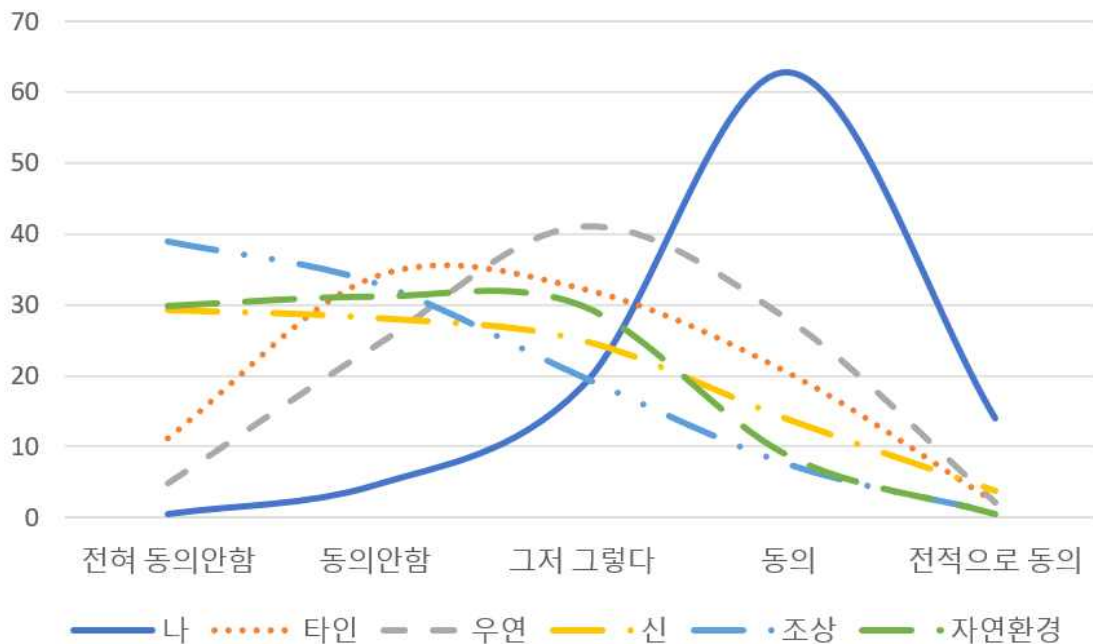
[그림 2-23] 건강상태, 재정상태, 사회관계 만족도의 개인별 평균(X축)과 개인별 분산(Y축) 교차



6 삶의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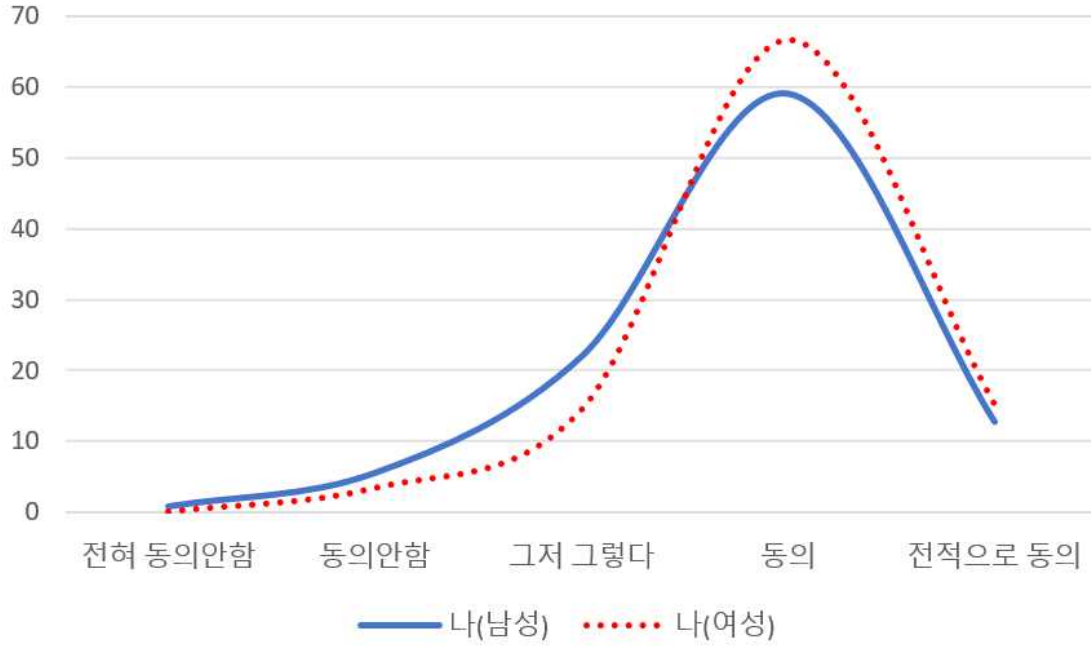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 힘센 타인, 우연, 신/절대자, 조상, 자연환경)이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정리한 것이다. 응답자 전체에서 나 자신이 라는 데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다음으로, 우연, 힘센 타인, 신, 자연환경, 조상 등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다.

[그림 2-24] 삶의 결정요인



성별 차이를 분석하면, 자연환경이나 우연이라고 응답하는 정도에서는 차이가 없다. 반면 나와 신이라는 응답은 여성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힘센 타인과 조상이라는 응답은 여성에게서 낮게 나타난다.

[그림 2-25] 성별 삶의 결정요인: 나 자신



[그림 2-26] 성별 삶의 결정요인: 힘센 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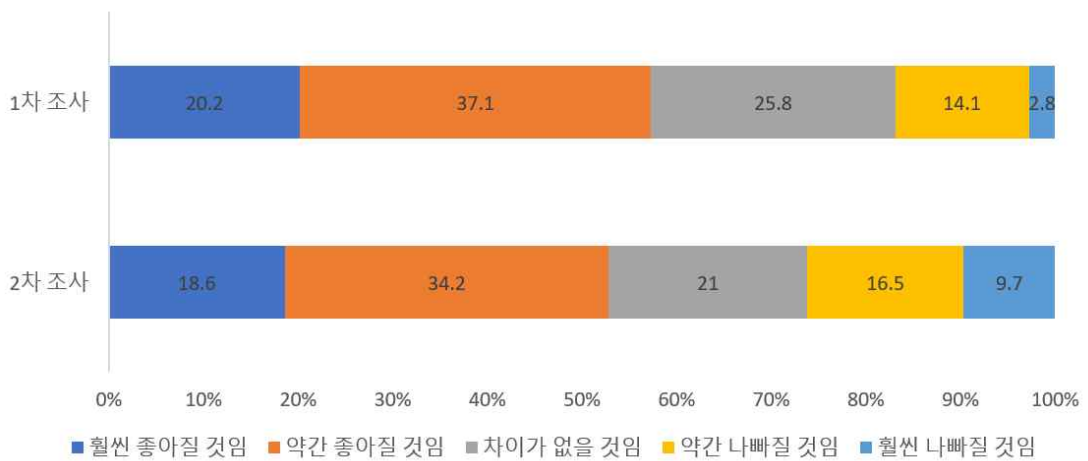


7 미래 자녀들의 생활수준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1차 조사와 비교하여 2차 조사에서 미래에 자녀들의 생활수준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림 2-27] 미래 자녀들의 생활수준

(단위: %)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한 결과임.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제3장

코로나19와 사회적 배제

제1절 외부집단에 대한 배제: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제2절 외부집단에 대한 신뢰

제 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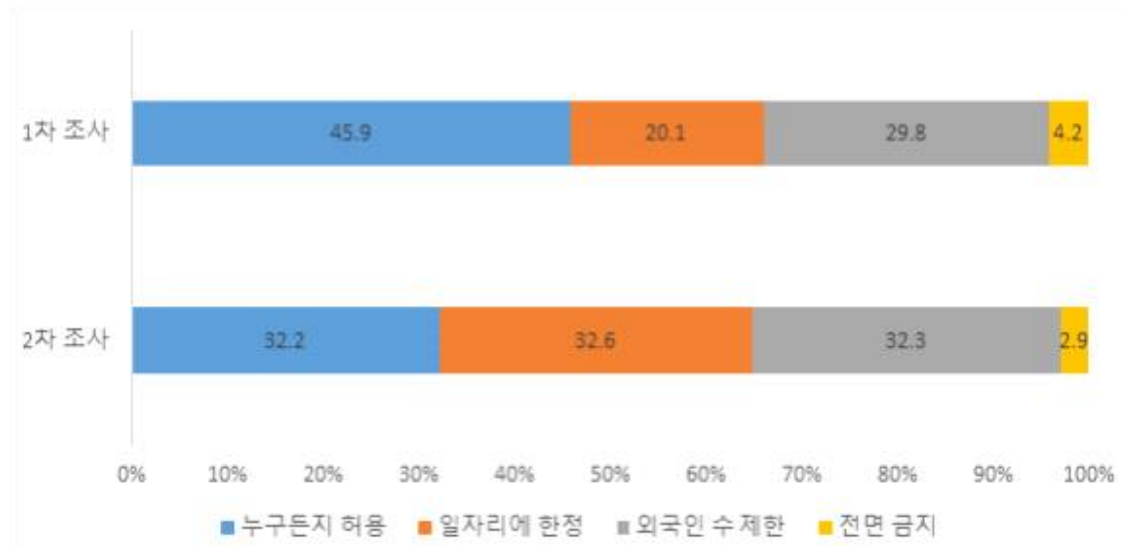
외부집단에 대한 배제: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0년 5월과 10월에 실시한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한 태도’를 묻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다. 1차 조사당시에는 45.9%가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었던 반면에 2차 조사에는 32.2%로 13.7%p 감소하였다. 반면에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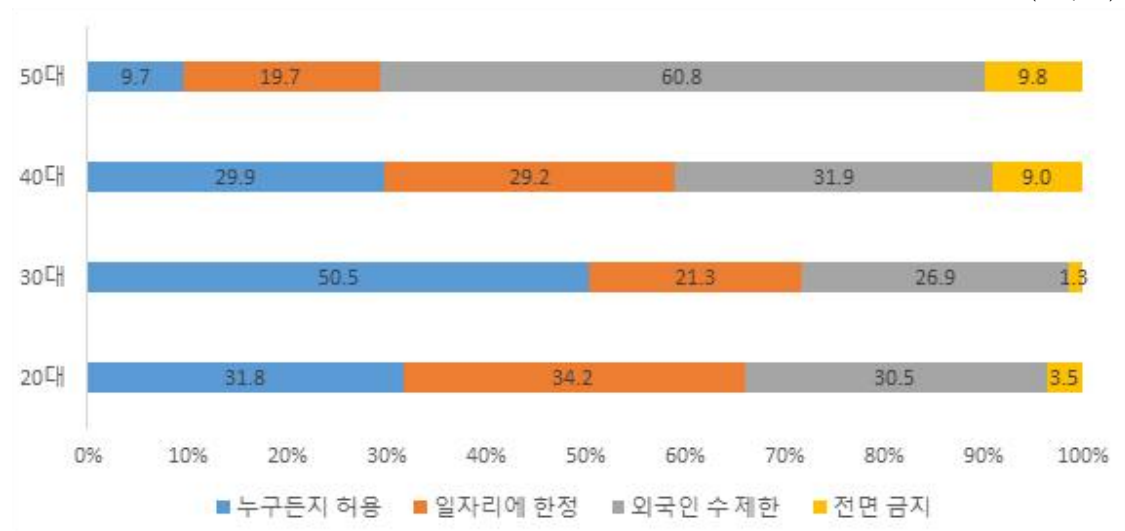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한 결과임.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이전의 분석결과는 조사차수별 평균적인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코로나19 경험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대상에게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2차 조사에서 1차와 다른 태도로 보인 비율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보이다가 이후 배제의 태도로 변화된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1차 조사 당시에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그 이후에 외국인에 대해 배제의 감정이 더 커질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20대 중에서 1차 조사 당시에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던 사람이 2차 조사에는 그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31.8%가 여전히 1차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34.2%는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변화하였고 30.5%는 ‘올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변화하였다.

[그림 3-2] 연령별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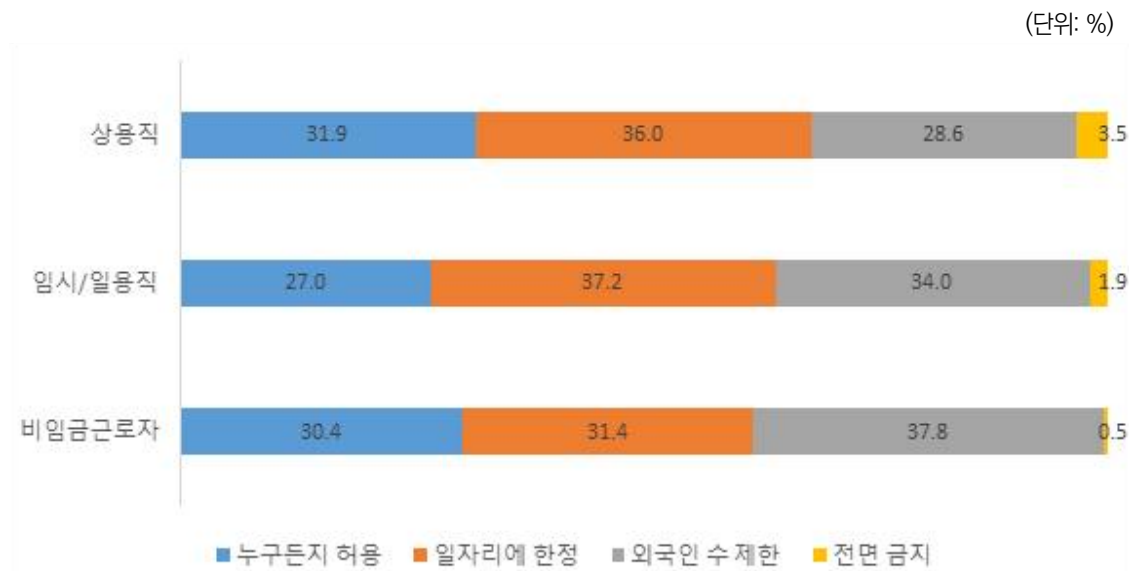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한 결과임.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전체적으로 볼 때 1차와 동일한 의견을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30대인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올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동한 비율이 60.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차 조사 당시에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그 이후에 외국인에 대해 배제의 감정이 더 커진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1차 조사 당시와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상용직근로자로 31.9%가 여전히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올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변화된 집단은 비임금근로자에서 37.8%로 가장 높았다.

[그림 3-3] 종사상 지위에 따른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한 결과임.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다음은 2차 조사를 기준으로 ‘가족이나 친구의 감염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가족이나 친구의 감염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외국인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에서 34.0%로 나타난 반면, 두렵지 않다고 느끼는 집단은 28.6%로 나타났다.

[그림 3-4] 가족이나 친구의 감염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별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주: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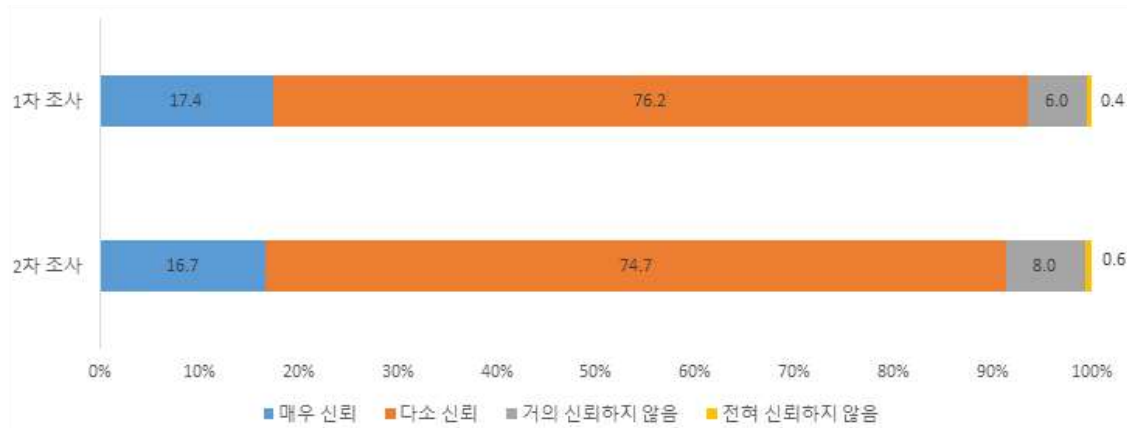
외부집단에 대한 신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0년 5월과 10월에 실시한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묻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다. ‘매우 신뢰한다’는 비율은 1차 조사에서 17.4%, 2차 조사에서는 16.7%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다소 신뢰한다’라는 응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3-5]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

(단위: %)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한 결과임.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또한 흥미로운 것은 1차 조사 당시의 신뢰도가 2차 조사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의 [표 3-1]의 결과이다. 1차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차 조사에서도 91.2%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1차 조사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던 사람의 94.2%가 신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

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코로나19가 내집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변화

(단위: %)

구분		2차 조사	
		신뢰	비신뢰
1차 조사	신뢰	91.2	8.8
	비신뢰	94.2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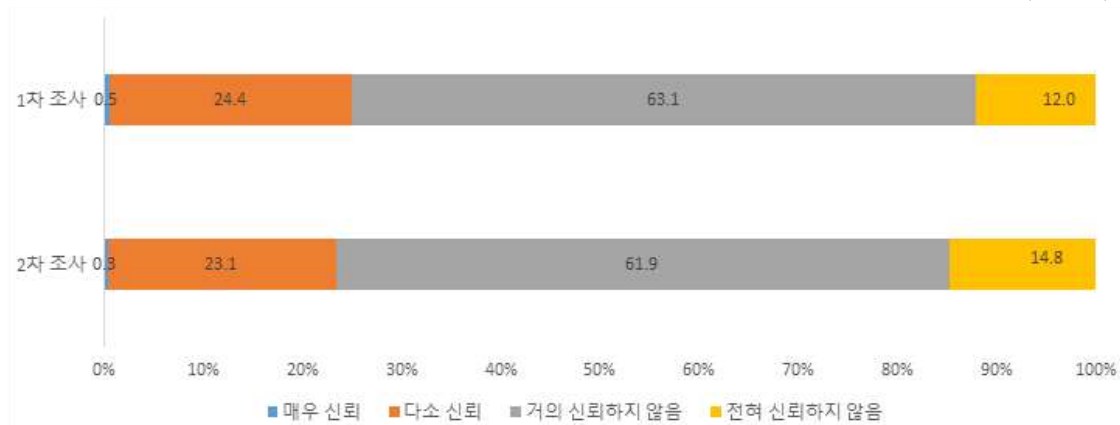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한 결과임.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이와는 다르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1차 조사에서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3.1%에서 2차 조사에서는 61.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2.0%(1차 조사)에서 14.8%(2차 조사)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림 3-6]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

(단위: %)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한 결과임.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하지만,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의 신뢰도 변화를 살펴본 아래의 [표 3-2]의 결과를 보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즉, 1차 조사 당시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변화된 비율이 78.6%로, 1차 조사에서 신뢰하지 않았으나 2차 조사에서 신뢰한다고 응답한 23.9%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내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높이고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낮추는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변화

(단위: %)

구분		2차 조사	
		신뢰	비신뢰
1차 조사	신뢰	21.4	78.6
	비신뢰	23.9	76.1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한 결과임.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제4장

코로나19와 정책관

제1절 국민들의 정책관 변화

제2절 국민들의 국가자긍심 변화

제3절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

제 1절

국민들의 정책관 변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0년 5월과 10월에 실시한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에 포함된 ‘향후 10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시계열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에 향후 10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2010년에는 ‘물가 상승 억제’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이 50.6%였다. 이것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의 위기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억제’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5월에는 32.1%, 10월에는 33.7%로 낮아졌다. 반면, ‘국가의 질서 유지’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이 5월에 37.6%, 10월에는 37.7%로 가장 높았다.

[표 4-1] 향후 10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단위: %)

구분	2010년	2020년(VIC)	
		1차	2차
국가의 질서 유지	25.0	37.6	37.7
정부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더 많은 발언권 부여	15.7	20.1	20.0
물가 상승 억제	50.6	32.1	33.7
언론 자유의 보호	8.7	10.3	8.5

주: 1) 2010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임.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다음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 주된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다. 6개의 주된 정책 분야 중 국민들이 정부의 책임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분야는 2006년에는 ‘물가 안정(3.53점)’이었으며, 2016년(3.37점) 그리고 2020년(3.33점)에도 가장 높다. 반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나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난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2020년 조사에서 요구도가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4-2]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구도

(단위: 점수)

구분	2006년	2016년	2020년(VIC)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2.89	2.65	2.64
물가 안정	3.53	3.37	3.33
환자에게 보건의료 제공	3.26	3.15	3.17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3.20	2.97	3.01
산업계 성장에 필요한 지원 제공	2.82	2.75	3.04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3.18	3.16	2.80

주: 1) 2006년과 2016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임.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분야 예산에 대한 확대 요구도가 증가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보건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요구도는 2006년 4.06점에서 2014년 3.81점으로 감소하여 3.8점대에서 소폭의 증감을 계속하면서 유지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0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예산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해 확대 요구도가 가장 크다.

[표 4-3] 정책분야별 정부지출 확대 요구도

(단위: 점수)

구분	2006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VIC)
환경	3.89	3.77	3.75	3.85	3.72
보건	4.06	3.81	3.82	3.86	3.83
치안	3.79	3.86	3.87	3.71	3.58
교육	3.88	3.64	3.68	3.68	3.41
국방	3.25	3.49	3.32	3.12	3.49
노인연금	3.97	3.58	3.56	3.42	3.35
실업수당	3.50	3.33	3.39	3.10	3.10
문화예술	3.34	3.27	3.19	3.20	3.12

주: 1) 2006년~2018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임.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 하겠다. 이에 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가 달라졌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4-4]와 같다.

2006년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요구도가 4.42점으로 가장 컸으며, 이후 소폭의 증감은 있으나 4점대의 높은 점수를 유지해왔다. 다만, 2020년 조사에서는 3.6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6개의 정책 중 2순위로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체의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지지도 역시 2006년 4.39점에서 이후 4점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높은 지지도를 보여 왔고, 2020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인다.

[표 4-4] 경기부양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도

(단위: 점수)

구분	2006년	2016년	2018년	2020년 (VIC)
정부 지출 삭감	3.48	3.42	3.46	3.44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4.42	4.22	4.12	3.60
기업규제의 완화	3.77	3.34	3.42	3.59
산업체의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지원	4.39	4.11	4.24	3.93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사양산업 지원	3.82	3.67	3.54	3.37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3.56	3.57	3.44	3.25

주: 1) 2006년~2018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임.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제2절

국민들의 국가자긍심 변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소위 'K-방역'으로 불리우며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국내외 평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 자긍심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자긍심과 관련하여 2003년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은 '과학기술의 성취' 부문으로 2.73점이었으며, 2013년에도 3.02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20년 조사에서도 3.0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유지하지만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와 관련해서는 2003년 1.89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2013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가장 낮은 상태는 그대로이며, 2020년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부문별 국가자긍심의 변화

(단위: 점수)

구분	2003년	2013년	2020년(VIC)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2.28	2.61	2.67
경제적 성취	2.43	2.91	2.72
사회보장제도	1.93	2.38	2.74
과학기술의 성취	2.73	3.02	3.01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	2.66	2.94	2.88
군사력	2.26	2.60	2.52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1.89	2.18	2.21

주: 1) 2003년과 2013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임.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제3절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다음은 K-방역의 성공요인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지적하는 국내외 연구들이 최근 제시되고 있으나(You, 2020), 반대의 의견도 제시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시사인 보도자료, 2020. 06. 02). 이에 한국인들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평균값만 비교했을 때 2008년 4.75점에서 10년이 흐른 2018년에는 4.26점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조사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4.25점으로 나타났다.

[표 4-6]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1: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위: %, 점수)

구분	2008년	2018년	2020년(VIC)
매우동의	10.8	5.2	1.8
동의	23.5	16.7	14.3
다소동의	26.6	22.5	26.2
동의도 반대도 아님	16.7	23.9	33.8
다소 반대	15.4	20.8	15.9
반대	5.5	8.4	5.7
매우 반대	1.5	2.5	2.4
평균	4.75	4.26	4.25

주: 1) 2008년과 2018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임.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3) 평균값은 역부호화하여 계산된 값으로 값이 클수록 동의도가 큰 것임.

다음으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평균값만 비교했을 때 2008년 4.87점에서 2018년 4.49점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조사에서는 이보다 더 낮아져 4.30점으로 나타났다.

[표 4-7]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2: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단위: %, 점수)

구분	2008년	2018년	2020년(VIC)
매우동의	11.5	6.3	2.4
동의	25.1	16.8	13.6
다소동의	30.4	33.7	31.5
동의도 반대도 아님	11.4	16.9	28.4
다소 반대	16.9	17.8	16.7
반대	3.4	6.4	5.4
매우 반대	1.3	2.1	2.1
평균	4.87	4.49	4.30

주: 1) 2008년과 2018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임.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3) 평균값은 역부호화하여 계산된 값으로 값이 클수록 동의도가 큰 것임.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선입견과는 다르게 집단주의적 성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변화 추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

1.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 개요
2.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2차) 빈도표
3.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2차) 설문지

1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 개요

[표 부록-1]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 개요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기간	2020/05/26-06/02 (6일)	2020/10/23-11/03 (12일)
조사수행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	마크로밀 엠브레인
조사대상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4,000명	1차 조사 응답자 대상 패널 조사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
표본 수	4,000명	3,033명
표본 유지율	-	75.8%
가중치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연령, 성별, 지역을 이용함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연령, 성별, 지역을 이용함

2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2차) 빈도표

[표 부록-2] 귀하는 본인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걱정되십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구분		매우 걱정된다		어느 정도 걱정된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345	22.9	936	62.3	192	12.8	31	2.0
	여자	421	27.6	938	61.3	157	10.2	14	0.9
연령	18-29세	145	25.9	340	60.6	67	12.0	9	1.6
	30-39세	149	29.4	294	58.2	52	10.3	10	2.1
	40-49세	114	19.4	407	69.2	61	10.4	6	0.9
	50세 이상	358	26.0	833	60.4	168	12.2	19	1.4
전체		766	25.3	1874	61.8	349	11.5	44	1.5

[표 부록-3] 그럼, 귀하 본인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구분		많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20	8.0	976	64.9	372	24.8	35	2.3
	여자	110	7.2	895	58.5	508	33.2	17	1.1
연령	18-29세	47	8.4	370	65.9	128	22.7	17	3.0
	30-39세	51	10.1	332	65.6	110	21.8	13	2.5
	40-49세	29	4.9	405	68.8	150	25.5	5	0.8
	50세 이상	103	7.5	765	55.5	493	35.7	17	1.3
전체		230	7.6	1871	61.7	881	29.0	51	1.7

[표 부록-4] 귀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COVID-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있었다

구분		예: 경험했다		아니오: 경험하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1	0.8	1492	99.2
	여자	6	0.4	1523	99.6
연령	18-29세	5	0.8	556	99.2
	30-39세	4	0.8	501	99.2
	40-49세	4	0.6	585	99.4
	50세 이상	5	0.4	1373	99.6
전체		18	0.6	3015	99.4

[표 부록-5] 귀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COVID-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있었다

구분		예: 경험했다		아니오: 경험하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21	8.0	1383	92.0
	여자	136	8.9	1394	91.1
연령	18-29세	43	7.6	518	92.4
	30-39세	49	9.7	456	90.3
	40-49세	34	5.8	554	94.2
	50세 이상	130	9.5	1248	90.5
전체		256	8.4	2777	91.6

[표 부록-6] 귀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COVID-19의 경미한 증상이 있다/있었다

구분		예: 경험했다		아니오: 경험하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43	2.9	1460	97.1
	여자	44	2.9	1486	97.1
연령	18-29세	40	7.1	521	92.9
	30-39세	20	4.0	486	96.0
	40-49세	16	2.7	573	97.3
	50세 이상	11	0.8	1367	99.2
전체		87	2.9	2946	97.1

[표 부록-7] 귀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COVID-19의 심한 증상이 있다/있었다

구분		예: 경험했다		아니오: 경험하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9	0.6	1495	99.4
	여자	2	0.1	1527	99.9
연령	18-29세	3	0.6	558	99.4
	30-39세	4	0.8	501	99.2
	40-49세	2	0.3	587	99.7
	50세 이상	1	0.1	1377	99.9
전체		11	0.4	3022	99.6

[표 부록-8] 귀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은 경미한 증상이 있다/있었다

구분		예: 경험했다		아니오: 경험하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85	5.6	1418	94.4
	여자	111	7.3	1418	92.7
연령	18-29세	63	11.1	498	88.9
	30-39세	34	6.6	472	93.4
	40-49세	39	6.6	550	93.4
	50세 이상	61	4.5	1317	95.5
전체		196	6.5	2837	93.5

[표 부록-9] 귀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은 심한 증상이 있다/있었다

구분		예: 경험했다		아니오: 경험하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4	0.9	1489	99.1
	여자	24	1.6	1506	98.4
연령	18-29세	9	1.7	552	98.3
	30-39세	6	1.3	499	98.7
	40-49세	6	0.9	583	99.1
	50세 이상	16	1.2	1362	98.8
전체		38	1.2	2995	98.8

[표 부록-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직장을 잃었다

구분		예: 겪었다		아니오: 겪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37	9.1	1366	90.9
	여자	106	6.9	1424	93.1
연령	18-29세	48	8.6	513	91.4
	30-39세	39	7.8	466	92.2
	40-49세	46	7.9	542	92.1
	50세 이상	109	7.9	1269	92.1
전체		243	8.0	2790	92.0

[표 부록-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사업을 접어야 했다

구분		예: 겪었다		아니오: 겪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70	4.7	1433	95.3
	여자	36	2.4	1494	97.6
연령	18-29세	10	1.7	551	98.3
	30-39세	6	1.2	499	98.8
	40-49세	17	2.9	571	97.1
	50세 이상	74	5.3	1304	94.7
전체		107	3.5	2926	96.5

[표 부록-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시간제 근로자가 되었다

구분		예: 겪었다		아니오: 겪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09	7.2	1395	92.8
	여자	109	7.2	1420	92.8
연령	18-29세	48	8.5	513	91.5
	30-39세	26	5.2	479	94.8
	40-49세	42	7.1	547	92.9
	50세 이상	102	7.4	1276	92.6
전체		218	7.2	2815	92.8

[표 부록-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재택근무를 한다

구분		예: 겪었다		아니오: 겪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54	16.9	1249	83.1
	여자	244	16.0	1285	84.0
연령	18-29세	105	18.7	456	81.3
	30-39세	118	23.3	388	76.7
	40-49세	118	20.1	470	79.9
	50세 이상	157	11.4	1221	88.6
전체		498	16.4	2535	83.6

[표 부록-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받는다

구분		예: 겪었다		아니오: 겪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90	19.3	1213	80.7
	여자	339	22.2	1191	77.8
연령	18-29세	131	23.3	430	76.7
	30-39세	107	21.2	398	78.8
	40-49세	122	20.8	466	79.2
	50세 이상	269	19.5	1109	80.5
전체		629	20.7	2404	79.3

[표 부록-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예전처럼 출근한다

구분		예: 겪었다		아니오: 겪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898	59.8	605	40.2
	여자	736	48.1	794	51.9
연령	18-29세	275	49.1	286	50.9
	30-39세	336	66.5	170	33.5
	40-49세	412	69.9	177	30.1
	50세 이상	612	44.4	766	55.6
전체		1635	53.9	1398	46.1

[표 부록-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내 자녀를 직접 돌본다

구분		예: 겪었다		아니오: 겪지 않았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360	23.9	1143	76.1
	여자	352	23.0	1178	77.0
연령	18-29세	10	1.8	551	98.2
	30-39세	100	19.8	406	80.2
	40-49세	248	42.2	340	57.8
	50세 이상	354	25.7	1024	74.3
전체		712	23.5	2321	76.5

[표 부록-17] 귀하는 귀하나 귀하의 사랑하는 사람들(가족, 친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하게 고통받을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구분		매우 두렵다		다소 두렵다		두렵지도 두렵지 않지도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47	16.4	827	55.0	287	19.1	120	8.0	23	1.5
	여자	342	22.3	877	57.3	209	13.7	99	6.5	4	0.2
연령	18-29세	93	16.5	314	56.0	106	18.9	41	7.2	8	1.3
	30-39세	120	23.7	271	53.7	81	15.9	29	5.8	5	0.9
	40-49세	81	13.8	357	60.7	100	16.9	46	7.8	5	0.8
	50세 이상	295	21.4	761	55.2	210	15.2	103	7.5	9	0.7
전체		588	19.4	1703	56.2	496	16.4	219	7.2	26	0.9

[표 부록-18] 귀하는 일반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하게 고통받을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구분		매우 두렵다		다소 두렵다		두렵지도 두렵지 않지도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56	10.4	846	56.3	360	24.0	112	7.5	29	1.9
	여자	242	15.8	923	60.3	287	18.7	77	5.0	1	0.1
연령	18-29세	39	6.9	314	56.0	151	26.9	45	8.1	12	2.1
	30-39세	67	13.2	285	56.3	115	22.7	32	6.3	8	1.5
	40-49세	57	9.7	349	59.3	139	23.6	43	7.2	1	0.2
	50세 이상	235	17.1	821	59.6	243	17.6	70	5.1	10	0.7
전체		398	13.1	1768	58.3	647	21.3	190	6.2	31	1.0

[표 부록-19] 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귀하나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들(가족, 친구)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통받을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구분		매우 두렵다		다소 두렵다		두렵지도 두렵지 않지도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90	19.3	883	58.7	233	15.5	79	5.2	20	1.3
	여자	427	27.9	851	55.6	188	12.3	62	4.1	2	0.1
연령	18-29세	137	24.5	305	54.3	90	16.0	22	3.8	8	1.3
	30-39세	132	26.2	274	54.3	67	13.2	28	5.4	4	0.8
	40-49세	109	18.5	360	61.2	93	15.8	26	4.4	1	0.2
	50세 이상	338	24.5	794	57.6	171	12.4	66	4.8	9	0.7
전체		716	23.6	1733	57.1	421	13.9	141	4.6	22	0.7

[표 부록-20] 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일반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통받을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구분		매우 두렵다		다소 두렵다		두렵지도 두렵지 않지도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02	13.4	915	60.9	303	20.2	64	4.2	19	1.3
	여자	309	20.2	996	65.1	181	11.8	41	2.7	3	0.2
연령	18-29세	65	11.7	340	60.6	124	22.1	24	4.3	8	1.3
	30-39세	95	18.9	294	58.2	93	18.5	18	3.5	5	0.9
	40-49세	82	13.9	386	65.6	101	17.2	19	3.3	0	0.0
	50세 이상	269	19.5	890	64.6	165	12.0	43	3.1	10	0.7
전체		512	16.9	1911	63.0	484	15.9	104	3.4	22	0.7

[표 부록-21]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못하고 있다		다소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19	7.9	159	10.6	365	24.3	597	39.7	263	17.5
	여자	48	3.2	138	9.0	355	23.2	692	45.2	297	19.4
연령	18-29세	22	4.0	84	15.1	186	33.2	201	35.8	67	11.9
	30-39세	31	6.1	35	6.8	146	28.8	204	40.4	90	17.7
	40-49세	22	3.8	37	6.3	126	21.4	301	51.1	103	17.5
	50세 이상	92	6.6	141	10.2	262	19.0	582	42.3	301	21.9
전체		167	5.5	297	9.8	720	23.7	1288	42.5	560	18.5

[표 부록-22] 귀하는 다음의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구분		매우 못하고 있다		다소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531	35.3	384	25.6	370	24.6	175	11.6	43	2.9
	여자	527	34.4	432	28.2	342	22.4	201	13.2	27	1.8
연령	18-29세	276	49.3	150	26.7	95	16.9	39	7.0	0	0.1
	30-39세	262	51.8	111	22.0	102	20.1	27	5.3	4	0.8
	40-49세	182	31.0	196	33.4	146	24.8	60	10.2	4	0.7
	50세 이상	337	24.5	359	26.1	370	26.9	250	18.1	62	4.5
전체		1058	34.9	817	26.9	712	23.5	376	12.4	70	2.3

[표 부록-23] 귀하는 다음의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구분		매우 못하고 있다		다소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708	47.1	508	33.8	233	15.5	50	3.3	4	0.3
	여자	767	50.2	507	33.1	218	14.3	27	1.8	10	0.7
연령	18-29세	297	53.0	176	31.5	74	13.1	13	2.3	0	0.1
	30-39세	311	61.5	123	24.3	66	13.1	5	1.0	0	0.1
	40-49세	321	54.6	203	34.4	52	8.8	12	2.1	0	0.0
	50세 이상	546	39.6	512	37.2	260	18.8	47	3.4	13	1.0
전체		1476	48.7	1014	33.4	452	14.9	78	2.6	14	0.5

[표 부록-24] 귀하는 다음의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만

구분		매우 못하고 있다		다소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04	6.9	195	13.0	505	33.6	462	30.7	238	15.8
	여자	156	10.2	250	16.3	523	34.2	383	25.0	218	14.2
연령	18-29세	82	14.6	89	15.9	195	34.7	116	20.7	78	14.0
	30-39세	68	13.5	81	15.9	183	36.1	115	22.8	59	11.6
	40-49세	41	6.9	114	19.4	206	35.1	173	29.5	54	9.1
	50세 이상	69	5.0	161	11.7	444	32.2	439	31.9	265	19.2
전체		260	8.6	445	14.7	1028	33.9	845	27.8	456	15.0

[표 부록-25] 귀하는 다음의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트남

구분		매우 못하고 있다		다소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69	11.3	317	21.1	639	42.5	275	18.3	103	6.8
	여자	204	13.4	356	23.3	636	41.6	272	17.8	61	4.0
연령	18-29세	99	17.6	137	24.4	274	48.9	45	7.9	6	1.1
	30-39세	101	20.1	125	24.7	207	41.0	56	11.1	15	3.0
	40-49세	62	10.6	158	26.8	254	43.2	94	16.0	20	3.4
	50세 이상	111	8.1	253	18.4	540	39.2	352	25.6	122	8.9
전체		374	12.3	673	22.2	1275	42.0	547	18.0	164	5.4

[표 부록-26] 귀하는 다음의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구분		매우 못하고 있다		다소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784	52.1	506	33.6	165	11.0	36	2.4	13	0.9
	여자	831	54.3	501	32.7	158	10.4	29	1.9	10	0.7
연령	18-29세	260	46.4	208	37.1	78	13.8	14	2.5	1	0.3
	30-39세	279	55.1	154	30.5	63	12.4	7	1.4	2	0.5
	40-49세	350	59.5	179	30.5	52	8.9	7	1.2	0	0.0
	50세 이상	726	52.7	465	33.7	131	9.5	37	2.7	19	1.4
전체		1615	53.2	1006	33.2	323	10.7	65	2.2	23	0.8

[표 부록-27] 귀하는 다음의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럽

구분		매우 못하고 있다		다소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633	42.1	613	40.8	213	14.2	32	2.2	12	0.8
	여자	719	47.0	517	33.8	241	15.7	41	2.7	12	0.8
연령	18-29세	236	42.0	206	36.7	98	17.5	21	3.7	0	0.1
	30-39세	262	51.8	155	30.7	75	14.9	11	2.2	2	0.4
	40-49세	279	47.4	214	36.4	88	14.9	6	1.1	1	0.2
	50세 이상	576	41.8	555	40.2	192	14.0	35	2.5	21	1.5
전체		1352	44.6	1130	37.3	454	15.0	73	2.4	24	0.8

[표 부록-28] 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적절하다		다소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다소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8	1.9	169	11.3	372	24.8	800	53.2	134	8.9
	여자	17	1.1	165	10.8	343	22.4	902	59.0	102	6.7
연령	18-29세	11	2.0	114	20.3	192	34.3	219	39.0	25	4.5
	30-39세	13	2.5	60	11.8	162	32.1	234	46.4	37	7.2
	40-49세	6	1.0	50	8.5	131	22.2	357	60.6	45	7.7
	50세 이상	15	1.1	112	8.1	230	16.7	892	64.8	129	9.3
전체		45	1.5	335	11.0	715	23.6	1702	56.1	235	7.8

[표 부록-29] 귀하는 요즘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평소보다 호의적인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적대적인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십니까?

구분		적대적인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 -3		-2		-1		경우에 따라 다르다 0		1		2		호의적인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 3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4	1.6	59	3.9	191	12.7	992	66.0	174	11.6	50	3.3	13	0.8
	여자	31	2.0	107	7.0	156	10.2	1082	70.7	82	5.4	64	4.2	7	0.5
연령	18-29세	16	2.9	32	5.7	67	11.9	378	67.4	53	9.5	13	2.3	1	0.2
	30-39세	13	2.6	32	6.3	62	12.2	353	69.8	29	5.8	13	2.5	4	0.8
	40-49세	10	1.8	28	4.8	68	11.5	411	69.8	47	8.0	23	3.9	2	0.3
	50세 이상	15	1.1	74	5.4	151	11.0	933	67.7	127	9.2	65	4.7	13	0.9
전체		54	1.8	166	5.5	347	11.5	2074	68.4	257	8.5	114	3.8	20	0.7

[표 부록-30] 귀하는 우리나라가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피해를 입지도 성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326	21.7	616	41.0	561	37.3
	여자	429	28.1	488	31.9	612	40.0
연령	18-29세	152	27.0	260	46.3	150	26.7
	30-39세	113	22.4	177	35.1	215	42.5
	40-49세	119	20.2	205	34.8	265	45.0
	50세 이상	372	27.0	463	33.6	543	39.4
전체		755	24.9	1105	36.4	1173	38.7

[표 부록-31] 코로나 종식 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예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비대면 문화(재택근무, 외출/접촉 자제, 화상회의)가 지속될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매우 동의함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55	3.6	171	11.4	451	30.0	672	44.7	155	10.3
	여자	28	1.8	144	9.4	457	29.9	718	46.9	184	12.0
연령	18-29세	26	4.6	68	12.1	144	25.8	256	45.5	67	12.0
	30-39세	19	3.8	58	11.4	143	28.3	224	44.2	62	12.3
	40-49세	17	2.8	51	8.7	172	29.3	287	48.8	61	10.4
	50세 이상	20	1.5	138	10.0	448	32.5	623	45.2	148	10.8
전체		82	2.7	315	10.4	907	29.9	1390	45.8	339	11.2

[표 부록-32] 코로나 종식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예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매우 동의함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3	1.5	111	7.4	392	26.1	604	40.1	374	24.9
	여자	9	0.6	82	5.4	377	24.6	712	46.5	350	22.9
연령	18-29세	8	1.5	52	9.2	190	33.8	208	37.1	104	18.5
	30-39세	12	2.3	31	6.1	133	26.4	189	37.5	140	27.7
	40-49세	6	1.0	26	4.5	145	24.6	287	48.7	125	21.2
	50세 이상	7	0.5	85	6.1	301	21.8	631	45.8	355	25.8
전체		33	1.1	194	6.4	769	25.3	1315	43.4	723	23.8

[표 부록-33] 코로나 종식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예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경제적 이익보다 자연환경 보호가 우선할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매우 동의함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24	8.2	378	25.1	607	40.4	319	21.2	76	5.0
	여자	74	4.9	347	22.7	651	42.5	373	24.4	85	5.6
연령	18-29세	71	12.6	151	26.9	215	38.3	96	17.1	28	5.1
	30-39세	54	10.7	151	29.9	190	37.6	86	17.0	24	4.7
	40-49세	29	4.9	154	26.2	242	41.2	138	23.5	25	4.2
	50세 이상	44	3.2	268	19.5	610	44.3	372	27.0	84	6.1
전체		198	6.5	724	23.9	1257	41.5	692	22.8	161	5.3

[표 부록-34] 코로나 종식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예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취약계층 보호 및 포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매우 동의함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78	5.2	308	20.5	676	45.0	377	25.1	63	4.2
	여자	41	2.7	292	19.1	745	48.7	398	26.0	53	3.5
연령	18-29세	42	7.4	115	20.5	241	43.0	140	25.0	23	4.0
	30-39세	31	6.2	127	25.1	212	42.0	114	22.5	21	4.2
	40-49세	14	2.4	119	20.3	285	48.3	156	26.5	14	2.4
	50세 이상	32	2.3	239	17.3	683	49.6	365	26.5	58	4.2
전체		120	3.9	600	19.8	1421	46.8	776	25.6	116	3.8

[표 부록-35] 코로나 종식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예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세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매우 동의함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5	1.7	167	11.1	519	34.5	607	40.4	184	12.3
	여자	29	1.9	148	9.7	586	38.3	616	40.3	150	9.8
연령	18-29세	12	2.1	87	15.5	226	40.4	173	30.8	63	11.3
	30-39세	21	4.2	59	11.7	174	34.5	175	34.6	76	15.0
	40-49세	8	1.4	57	9.7	217	36.9	240	40.8	65	11.1
	50세 이상	13	1.0	112	8.2	487	35.3	636	46.1	130	9.4
전체		54	1.8	316	10.4	1105	36.4	1224	40.3	334	11.0

[표 부록-36] 코로나 종식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예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정치적 이념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매우 동의함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3	1.5	115	7.6	463	30.8	558	37.1	345	22.9
	여자	30	1.9	135	8.8	485	31.7	637	41.6	244	15.9
연령	18-29세	10	1.8	32	5.7	210	37.5	203	36.2	105	18.8
	30-39세	11	2.3	49	9.7	149	29.5	193	38.1	103	20.5
	40-49세	7	1.2	51	8.6	202	34.3	238	40.5	91	15.4
	50세 이상	24	1.7	117	8.5	387	28.1	561	40.7	288	20.9
전체		52	1.7	249	8.2	948	31.3	1195	39.4	588	19.4

[표 부록-37] 코로나 종식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예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남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매우 동의함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79	5.2	260	17.3	730	48.6	307	20.4	127	8.5
	여자	87	5.7	366	23.9	775	50.7	240	15.7	62	4.0
연령	18-29세	31	5.5	95	17.0	251	44.7	130	23.3	53	9.5
	30-39세	45	8.8	99	19.5	217	42.9	100	19.7	46	9.1
	40-49세	28	4.8	133	22.7	291	49.5	109	18.5	26	4.5
	50세 이상	62	4.5	299	21.7	746	54.2	208	15.1	63	4.6
전체		166	5.5	626	20.6	1506	49.6	547	18.0	189	6.2

[표 부록-38] 코로나 종식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예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지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매우 동의함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68	4.5	252	16.8	672	44.7	385	25.6	126	8.4
	여자	67	4.4	283	18.5	714	46.6	372	24.3	94	6.1
연령	18-29세	26	4.7	86	15.3	256	45.6	141	25.2	52	9.3
	30-39세	36	7.0	100	19.7	192	38.0	119	23.6	59	11.7
	40-49세	23	3.9	107	18.2	276	46.9	150	25.4	33	5.6
	50세 이상	50	3.6	243	17.7	662	48.0	347	25.2	75	5.5
전체		135	4.4	536	17.7	1386	45.7	757	25.0	220	7.2

[표 부록-39] 코로나 종식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예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방역 및 보건의료 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매우 동의함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7	1.2	66	4.4	275	18.3	755	50.3	389	25.9
	여자	3	0.2	30	2.0	225	14.7	837	54.7	434	28.3
연령	18-29세	7	1.2	24	4.3	104	18.6	250	44.6	176	31.3
	30-39세	7	1.3	26	5.1	79	15.6	226	44.8	168	33.2
	40-49세	3	0.5	19	3.3	88	14.9	321	54.5	158	26.8
	50세 이상	4	0.3	27	2.0	230	16.7	796	57.8	322	23.3
전체		20	0.7	96	3.2	501	16.5	1593	52.5	823	27.1

[표 부록-40] 코로나 종식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예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개인에 대한 감시가 심화될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매우 동의함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88	5.9	245	16.3	591	39.3	445	29.6	135	9.0
	여자	87	5.7	274	17.9	642	42.0	423	27.7	103	6.7
연령	18-29세	25	4.5	84	14.9	226	40.3	176	31.4	49	8.8
	30-39세	33	6.5	76	15.0	180	35.6	158	31.2	59	11.7
	40-49세	32	5.4	116	19.7	238	40.5	169	28.7	33	5.6
	50세 이상	85	6.2	243	17.6	589	42.7	365	26.5	97	7.0
전체		176	5.8	519	17.1	1233	40.7	868	28.6	238	7.8

[표 부록-41] 코로나 종식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예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매우 동의함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35	2.3	174	11.6	643	42.8	533	35.5	118	7.9
	여자	19	1.2	169	11.1	680	44.4	560	36.6	101	6.6
연령	18-29세	15	2.7	55	9.7	288	51.3	163	29.1	40	7.1
	30-39세	20	3.9	72	14.2	217	42.8	167	32.9	30	6.0
	40-49세	6	1.0	82	13.9	237	40.2	231	39.2	34	5.7
	50세 이상	13	0.9	135	9.8	582	42.2	532	38.6	116	8.4
전체		54	1.8	343	11.3	1323	43.6	1093	36.0	220	7.2

[표 부록-42]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아래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초조함과 불안함

구분		전혀 없었다		일주일 미만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722	48.0	588	39.1	146	9.7	47	3.1
	여자	584	38.2	728	47.6	160	10.4	57	3.8
연령	18-29세	192	34.2	261	46.6	81	14.4	27	4.8
	30-39세	183	36.2	233	46.0	69	13.6	21	4.2
	40-49세	255	43.4	271	46.0	48	8.1	15	2.6
	50세 이상	676	49.1	552	40.1	108	7.9	42	3.0
전체		1306	43.1	1317	43.4	306	10.1	105	3.5

[표 부록-43]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아래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걱정을 멈추거나 통제할 수 없음

구분		전혀 없었다		일주일 미만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879	58.5	462	30.7	128	8.5	35	2.3
	여자	817	53.4	550	35.9	113	7.4	50	3.2
연령	18-29세	237	42.3	224	39.9	72	12.8	28	5.0
	30-39세	242	47.8	179	35.4	66	13.0	19	3.8
	40-49세	356	60.6	187	31.8	34	5.8	11	1.8
	50세 이상	861	62.5	421	30.6	69	5.0	27	1.9
전체		1696	55.9	1011	33.3	241	7.9	85	2.8

[표 부록-44]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아래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우울감 또는
절망감

구분		전혀 없었다		일주일 미만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811	53.9	469	31.2	176	11.7	48	3.2
	여자	697	45.5	617	40.3	152	9.9	64	4.2
연령	18-29세	212	37.9	207	36.8	107	19.0	35	6.3
	30-39세	213	42.2	189	37.3	80	15.8	24	4.7
	40-49세	295	50.1	223	38.0	55	9.3	16	2.6
	50세 이상	787	57.1	467	33.9	86	6.3	38	2.7
전체		1508	49.7	1086	35.8	327	10.8	112	3.7

[표 부록-45]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아래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구분		전혀 없었다		일주일 미만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582	38.7	598	39.8	218	14.5	105	7.0
	여자	546	35.7	650	42.5	199	13.0	134	8.8
연령	18-29세	151	27.0	210	37.4	125	22.4	74	13.2
	30-39세	137	27.0	194	38.3	99	19.5	76	15.1
	40-49세	197	33.4	286	48.6	72	12.3	34	5.7
	50세 이상	644	46.7	559	40.5	120	8.7	55	4.0
전체		1129	37.2	1248	41.2	417	13.7	239	7.9

[표 부록-46]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아래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외로움

구분		전혀 없었다		일주일 미만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656	43.6	579	38.5	187	12.4	81	5.4
	여자	647	42.3	615	40.2	172	11.3	95	6.2
연령	18-29세	194	34.6	221	39.5	105	18.7	41	7.2
	30-39세	197	39.0	189	37.3	87	17.1	33	6.5
	40-49세	260	44.2	246	41.8	55	9.4	27	4.5
	50세 이상	652	47.3	537	39.0	113	8.2	76	5.5
전체		1304	43.0	1194	39.4	359	11.9	176	5.8

[표 부록-47] 소셜 미디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병이 허위이며 모든 봉쇄조치가 과잉반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런 내용들을 믿으십니까?

구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67	11.1	1336	88.9
	여자	116	7.6	1414	92.4
연령	18-29세	44	7.8	517	92.2
	30-39세	31	6.1	474	93.9
	40-49세	46	7.8	543	92.2
	50세 이상	162	11.8	1216	88.2
전체		283	9.3	2750	90.7

[표 부록-48]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를 TV나 신문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 매체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소셜 미디어를 가장 신뢰한다 1		2		둘 다 신뢰한다 3		4		전통적인 매체를 가장 신뢰한다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52	3.5	164	10.9	485	32.2	577	38.4	225	15.0
	여자	20	1.3	209	13.7	458	29.9	594	38.8	248	16.2
연령	18-29세	11	2.0	58	10.4	234	41.7	201	35.9	56	10.0
	30-39세	7	1.4	58	11.5	199	39.5	174	34.3	67	13.3
	40-49세	15	2.5	85	14.4	197	33.6	228	38.7	64	10.8
	50세 이상	40	2.9	173	12.5	312	22.6	569	41.3	285	20.7
전체		73	2.4	374	12.3	943	31.1	1171	38.6	473	15.6

[표 부록-49] 귀하는 지난 1주 동안 코로나 관련 뉴스나 시사정보를 다음의 경로를 통해 얼마나 자주 보거나 들으셨습니까?... 텔레비전

구분		전혀 없다		1~2일		3~4일		5~6일		매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59	10.6	331	22.0	251	16.7	117	7.8	645	42.9
	여자	113	7.4	332	21.7	223	14.6	154	10.0	708	46.3
연령	18-29세	126	22.4	185	32.9	115	20.5	44	7.8	91	16.3
	30-39세	68	13.5	141	27.9	105	20.8	38	7.6	152	30.2
	40-49세	34	5.9	150	25.5	105	17.9	66	11.1	233	39.7
	50세 이상	44	3.2	187	13.6	148	10.8	123	8.9	876	63.6
전체		273	9.0	663	21.9	474	15.6	270	8.9	1353	44.6

[표 부록-50] 귀하는 지난 1주 동안 코로나 관련 뉴스나 시사정보를 다음의 경로를 통해 얼마나 자주 보거나 들으셨습니까?...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구분		전혀 없다		1~2일		3~4일		5~6일		매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43	2.9	238	15.8	333	22.2	225	15.0	663	44.1
	여자	53	3.5	269	17.6	315	20.6	267	17.5	625	40.8
연령	18-29세	10	1.7	92	16.4	160	28.5	85	15.1	215	38.3
	30-39세	13	2.6	84	16.7	99	19.6	77	15.3	232	45.8
	40-49세	8	1.4	93	15.9	139	23.6	99	16.8	249	42.3
	50세 이상	66	4.8	237	17.2	251	18.2	232	16.8	592	43.0
전체		97	3.2	507	16.7	649	21.4	493	16.2	1288	42.5

[표 부록-51] 귀하는 지난 1주 동안 코로나 관련 뉴스나 시사정보를 다음의 경로를 통해 얼마나 자주 보거나 들으셨습니까?... 종이신문

구분		전혀 없다		1~2일		3~4일		5~6일		매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968	64.4	272	18.1	95	6.3	67	4.5	101	6.7
	여자	1090	71.2	180	11.8	99	6.5	90	5.9	71	4.7
연령	18-29세	456	81.3	58	10.3	32	5.7	11	1.9	4	0.8
	30-39세	384	75.9	68	13.5	28	5.6	12	2.4	13	2.6
	40-49세	433	73.5	88	15.0	30	5.1	14	2.4	23	3.9
	50세 이상	786	57.0	237	17.2	104	7.6	120	8.7	131	9.5
전체		2058	67.9	452	14.9	194	6.4	157	5.2	172	5.7

[표 부록-52] 귀하는 지난 1주 동안 코로나 관련 뉴스나 시사정보를 다음의 경로를 통해 얼마나 자주 보거나 들으셨습니까?... 라디오

구분		전혀 없다		1~2일		3~4일		5~6일		매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768	51.1	321	21.4	213	14.1	91	6.1	110	7.3
	여자	933	61.0	280	18.3	150	9.8	93	6.1	73	4.8
연령	18-29세	414	73.8	63	11.2	49	8.7	23	4.1	12	2.2
	30-39세	296	58.6	104	20.5	61	12.1	26	5.2	18	3.6
	40-49세	294	49.9	141	23.9	76	13.0	37	6.2	41	7.0
	50세 이상	697	50.6	294	21.4	176	12.8	98	7.1	112	8.1
전체		1701	56.1	602	19.8	363	12.0	184	6.1	183	6.0

[표 부록-53] 귀하는 지난 1주 동안 코로나 관련 뉴스나 시사정보를 다음의 경로를 통해 얼마나 자주 보거나 들으셨습니까?... 소셜미디어(유튜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등)

구분		전혀 없다		1~2일		3~4일		5~6일		매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72	18.1	450	30.0	342	22.8	146	9.7	292	19.4
	여자	318	20.8	379	24.8	324	21.2	204	13.3	305	19.9
연령	18-29세	53	9.5	155	27.6	147	26.2	78	13.9	128	22.9
	30-39세	74	14.7	141	27.9	136	26.9	46	9.0	109	21.5
	40-49세	113	19.2	171	29.1	142	24.1	64	11.0	98	16.7
	50세 이상	349	25.3	363	26.3	242	17.6	162	11.8	262	19.0
전체		589	19.4	830	27.4	666	22.0	350	11.5	597	19.7

[표 부록-54]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마스크는 남들을 위해 쓰는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48	9.8	260	17.3	225	15.0	576	38.3	295	19.6
	여자	167	10.9	305	20.0	139	9.1	544	35.5	375	24.5
연령	18-29세	44	7.8	70	12.4	93	16.5	209	37.3	146	25.9
	30-39세	40	7.9	69	13.6	59	11.7	197	39.0	141	27.8
	40-49세	71	12.0	101	17.2	59	10.1	225	38.2	133	22.5
	50세 이상	160	11.6	326	23.6	153	11.1	489	35.5	250	18.2
전체		314	10.4	565	18.6	364	12.0	1120	36.9	669	22.1

[표 부록-55]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마스크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7	1.1	26	1.7	144	9.6	672	44.7	644	42.9
	여자	2	0.1	11	0.7	59	3.8	587	38.3	872	57.0
연령	18-29세	1	0.2	5	1.0	53	9.5	231	41.3	269	48.0
	30-39세	2	0.4	12	2.3	37	7.3	197	38.9	258	51.0
	40-49세	5	0.9	9	1.5	33	5.6	245	41.6	297	50.4
	50세 이상	10	0.7	11	0.8	79	5.7	586	42.5	692	50.2
전체		18	0.6	37	1.2	203	6.7	1259	41.5	1516	50.0

[표 부록-56]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마스크는 실제 감염예방효과가 있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1	0.7	34	2.2	112	7.4	758	50.4	589	39.2
	여자	3	0.2	3	0.2	61	4.0	680	44.4	783	51.2
연령	18-29세	2	0.4	16	2.8	41	7.3	235	41.9	267	47.5
	30-39세	4	0.7	8	1.6	43	8.6	198	39.2	252	49.8
	40-49세	2	0.3	5	0.8	33	5.5	266	45.2	283	48.2
	50세 이상	6	0.4	9	0.6	55	4.0	738	53.6	570	41.4
전체		14	0.4	37	1.2	172	5.7	1438	47.4	1372	45.2

[표 부록-57]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마스크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1	0.7	49	3.3	235	15.6	800	53.2	409	27.2
	여자	5	0.3	19	1.2	141	9.2	795	52.0	570	37.3
연령	18-29세	12	2.1	18	3.2	105	18.7	273	48.6	154	27.4
	30-39세	3	0.6	19	3.7	63	12.4	220	43.6	200	39.7
	40-49세	0	0.0	17	2.9	63	10.7	315	53.6	193	32.9
	50세 이상	1	0.1	15	1.1	146	10.6	786	57.0	431	31.3
전체		16	0.5	68	2.2	376	12.4	1594	52.6	979	32.3

[표 부록-58]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마스크는 서로 조심하자는 뜻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9	0.6	32	2.1	108	7.2	798	53.1	557	37.1
	여자	4	0.3	3	0.2	37	2.4	686	44.8	800	52.3
연령	18-29세	3	0.5	14	2.5	40	7.1	265	47.2	239	42.7
	30-39세	1	0.2	13	2.6	34	6.7	198	39.2	259	51.3
	40-49세	0	0.0	4	0.8	30	5.1	290	49.3	264	44.9
	50세 이상	9	0.6	2	0.2	42	3.1	731	53.0	594	43.1
전체		13	0.4	34	1.1	145	4.8	1483	48.9	1357	44.7

[표 부록-59]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마스크 착용으로 나의 일상이 많이 힘들어졌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51	3.4	230	15.3	530	35.3	522	34.7	170	11.3
	여자	31	2.0	130	8.5	476	31.1	647	42.3	245	16.0
연령	18-29세	19	3.4	58	10.3	161	28.7	223	39.8	100	17.8
	30-39세	14	2.7	57	11.3	156	30.9	187	37.0	92	18.1
	40-49세	20	3.3	73	12.3	184	31.3	258	43.8	54	9.2
	50세 이상	30	2.2	172	12.5	505	36.7	501	36.4	169	12.3
전체		82	2.7	359	11.8	1007	33.2	1169	38.6	415	13.7

[표 부록-60]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마스크 착용 덕에 나의 일상 중 뜻밖에 좋아진 점이 있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82	5.4	303	20.2	524	34.9	500	33.3	94	6.3
	여자	49	3.2	246	16.1	490	32.0	573	37.5	172	11.3
연령	18-29세	35	6.2	83	14.8	183	32.6	203	36.1	58	10.3
	30-39세	26	5.2	78	15.4	138	27.2	201	39.7	63	12.4
	40-49세	25	4.2	97	16.4	184	31.3	246	41.7	37	6.3
	50세 이상	44	3.2	291	21.2	510	37.0	424	30.8	108	7.8
전체		130	4.3	549	18.1	1014	33.4	1073	35.4	266	8.8

[표 부록-61]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공공의 건강을 위해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유보될 수 있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43	2.9	120	8.0	412	27.4	755	50.2	173	11.5
	여자	26	1.7	105	6.8	356	23.3	789	51.6	254	16.6
연령	18-29세	11	1.9	32	5.8	182	32.5	242	43.1	94	16.8
	30-39세	16	3.1	29	5.8	123	24.4	253	50.1	84	16.6
	40-49세	10	1.7	38	6.4	145	24.7	328	55.7	68	11.6
	50세 이상	34	2.4	126	9.1	318	23.0	721	52.3	180	13.1
전체		70	2.3	225	7.4	768	25.3	1544	50.9	426	14.1

[표 부록-62]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어야 공공의 건강이 지켜진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42	2.8	234	15.5	555	36.9	540	35.9	133	8.8
	여자	22	1.4	182	11.9	561	36.6	574	37.5	191	12.5
연령	18-29세	27	4.9	73	13.0	224	39.9	176	31.5	61	10.8
	30-39세	14	2.7	70	13.9	192	37.9	176	34.9	54	10.7
	40-49세	8	1.4	83	14.1	196	33.3	246	41.8	55	9.4
	50세 이상	15	1.1	189	13.7	505	36.6	515	37.4	154	11.2
전체		64	2.1	415	13.7	1116	36.8	1114	36.7	324	10.7

[표 부록-63]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나의
 건강상 안전을 위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36	2.4	118	7.9	492	32.7	731	48.6	127	8.4
	여자	19	1.3	76	4.9	382	24.9	836	54.7	217	14.2
연령	18-29세	12	2.2	28	4.9	156	27.9	271	48.3	94	16.7
	30-39세	6	1.2	33	6.6	148	29.2	241	47.6	78	15.3
	40-49세	8	1.3	35	5.9	194	33.0	301	51.1	51	8.6
	50세 이상	29	2.1	98	7.1	375	27.2	755	54.8	122	8.8
전체		55	1.8	194	6.4	873	28.8	1567	51.7	344	11.3

[표 부록-64]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의 건강상 위험을 감수한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95	13.0	429	28.6	492	32.7	333	22.2	54	3.6
	여자	252	16.5	518	33.9	400	26.1	251	16.4	109	7.1
연령	18-29세	88	15.7	150	26.7	170	30.4	117	20.9	35	6.3
	30-39세	73	14.5	162	32.0	139	27.5	106	21.0	26	5.1
	40-49세	76	12.9	191	32.5	170	28.8	129	21.9	23	3.9
	50세 이상	211	15.3	445	32.3	412	29.9	231	16.8	79	5.8
전체		447	14.8	948	31.2	891	29.4	584	19.2	163	5.4

[표 부록-65] 귀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3	0.2	16	1.1	152	10.1	929	61.8	403	26.8
	여자	0	0.0	4	0.2	71	4.7	845	55.2	610	39.9
연령	18-29세	0	0.0	1	0.2	61	10.9	338	60.2	161	28.7
	30-39세	1	0.3	9	1.8	65	12.9	315	62.4	114	22.6
	40-49세	1	0.2	5	0.8	44	7.5	395	67.1	143	24.4
	50세 이상	0	0.0	5	0.4	53	3.9	726	52.7	594	43.1
전체		3	0.1	20	0.7	224	7.4	1774	58.5	1013	33.4

[표 부록-66]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방역물품 부족		방역수칙 믿을 수 없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통제		어쩔 수 없이 자키지 못함		수칙을 깨먹음		치료받으면 됨		질병과 생사는 운명에 달렸음		감염되지 않을 것임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	7.1	3	16.2	5	24.6	6	30.5	4	19.5	0	0.0	0	0.0	0	2.0	0	0.0
	여자	1	25.0	0	0.0	0	0.0	1	35.3	1	17.1	0	12.5	0	0.0	0	10.2	0	0.0
연령	18-29세	1	70.7	0	0.0	0	0.0	0	29.3	0	0.0	0	0.0	0	0.0	0	0.0	0	0.0
	30-39세	1	9.3	2	21.1	4	40.0	0	4.6	3	25.0	0	0.0	0	0.0	0	0.0	0	0.0
	40-49세	0	6.6	1	15.3	1	8.6	3	47.6	1	8.6	0	0.0	0	0.0	1	13.2	0	0.0
	50세 이상	0	0.0	0	0.0	0	0.0	4	67.3	1	23.7	0	9.0	0	0.0	0	0.0	0	0.0
전체	2	10.0	3	13.6	5	20.6	7	31.3	4	19.1	0	2.0	0	0.0	1	3.4	0	0.0	

[표 부록-67] 지난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실천한 방역지침은 무엇입니까?

구분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제대로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2미터 거리두기)		필수적인 경우 외에 야외활동 자제		얼굴 만지지 않기		위 보기의 아무것도 안함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173	100	1105	100	1417	100	943	100	1112	100	409	100	1	100	2	100
	여자	1371	100	1158	100	1484	100	984	100	1304	100	650	100	0	100	4	100
연령	18-29세	413	100	427	100	533	100	279	100	400	100	159	100	1	100	1	100
	30-39세	398	100	348	100	477	100	249	100	376	100	142	100	0	0.0	0	100
	40-49세	488	100	421	100	566	100	352	100	458	100	191	100	0	100	4	100
	50세 이상	1244	100	1067	100	1324	100	1047	100	1183	100	567	100	0	0.0	1	100
전체	2543	100	2263	100	2901	100	1928	100	2416	100	1059	100	1	100	7	100	

[표 부록-68]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부족하다면 어떤 사람들부터 접종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구분		영유아 및 임신부		노약자		미취학 아동		초중고 학생		의료진		가져질환 자		방역관련 공무원		저소득층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511	34.0	337	22.4	65	4.3	53	3.5	296	19.7	125	8.3	65	4.3	33	2.2	12	0.8	6	0.4
	여자	529	34.6	269	17.6	49	3.2	45	2.9	454	29.7	126	8.2	42	2.7	10	0.7	2	0.1	5	0.3
연령	18-29세	157	28.0	95	16.9	24	4.3	35	6.2	169	30.1	40	7.1	16	2.9	16	2.9	6	1.0	4	0.7
	30-39세	185	36.5	78	15.4	29	5.7	10	2.0	134	26.6	40	8.0	21	4.2	4	0.9	1	0.2	3	0.5
	40-49세	193	32.8	132	22.5	26	4.4	26	4.5	126	21.4	61	10.4	13	2.2	7	1.2	1	0.2	3	0.4
	50세 이상	505	36.6	301	21.9	35	2.5	27	1.9	322	23.3	110	8.0	56	4.0	16	1.2	6	0.4	2	0.1
전체		1040	34.3	606	20.0	114	3.7	98	3.2	750	24.7	251	8.3	107	3.5	44	1.4	14	0.4	11	0.3


[표 부록-6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부족하다면 어떤 사람들부터 접종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

구분		영유아 및 임신부		노약자		미취학 아동		초중고 학생		의료진		가져질환 자		방역관련 공무원		저소득층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42	16.1	406	27.0	185	12.3	96	6.4	167	11.1	169	11.2	167	11.1	61	4.0	8	0.5	4	0.2
	여자	294	19.2	319	20.9	162	10.6	90	5.9	188	12.3	220	14.4	210	13.8	36	2.3	5	0.3	5	0.3
연령	18-29세	107	19.1	107	19.1	59	10.5	40	7.1	60	10.7	59	10.5	99	17.6	24	4.3	4	0.6	1	0.2
	30-39세	98	19.3	102	20.2	73	14.4	28	5.6	57	11.3	66	13.2	55	10.9	20	3.9	4	0.9	2	0.5
	40-49세	94	16.0	132	22.4	88	15.0	49	8.3	71	12.0	72	12.2	61	10.4	21	3.6	0	0.0	1	0.2
	50세 이상	236	17.1	385	27.9	127	9.2	69	5.0	167	12.1	192	13.9	162	11.8	32	2.3	5	0.4	4	0.3
전체		535	17.6	726	23.9	347	11.4	186	6.1	354	11.7	389	12.8	377	12.4	96	3.2	13	0.4	9	0.3

[표 부록-70]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구분		2020년 말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이후		종식 불가능		종식되겠지만 언제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4	1.6	196	13.0	461	30.7	245	16.3	112	7.5	71	4.7	104	6.9	292	19.4
	여자	8	0.5	253	16.6	406	26.5	187	12.2	91	6.0	58	3.8	92	6.0	435	28.4
연령	18-29세	4	0.8	59	10.5	171	30.4	105	18.6	33	5.8	16	2.8	32	5.8	141	25.2
	30-39세	6	1.3	52	10.3	159	31.4	70	13.8	46	9.2	31	6.1	28	5.5	114	22.5
	40-49세	4	0.6	89	15.2	193	32.8	74	12.5	41	6.9	28	4.8	39	6.6	121	20.5
	50세 이상	17	1.3	249	18.1	344	25.0	184	13.3	83	6.0	53	3.9	97	7.0	350	25.4
전체		32	1.1	449	14.8	867	28.6	431	14.2	203	6.7	128	4.2	196	6.5	726	23.9

3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2차) 설문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2차) VF
---	-------------------------

■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남/여 (1차 조사 응답자)
■ 총 샘플수: 총 3,000명
*별도 쿼터 없음

Q00.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주관으로 코로나로 인한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학문 연구입니다. 본 조사는 온라인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응답 완료 시 소정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수집된 설문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 데이터로서, 국회미래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연구원 및 학술분야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어 학술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되, 통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이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은 없으며, 연구 참가자가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원할 경우, 아래 담당 연구원의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참가자는 설문 응답 도중에 개인이 원할 시에 언제든지 중도 참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 시, 개인의 자료 및 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보관되거나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김솔이 박사: sorikim0313@gmail.com

[연구대상자 권리 정보에 관한 문의처]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031-299-6711

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아래 항목의 동의 버튼을 선택해 주십시오.
동의 버튼을 누르시면, 설문 조사가 시작됩니다.

1) 동의
2) 비동의

[PROG : Q00의 1) 동의 선택자만 조사 진행]

Theme Bloc 1 : Socio-Demographics

Q0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남자
- 2) 여자

Q02. 귀하의 출생연도를 적어주세요. [직접 입력]

____ (년)

Q02.1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1개 선택]

[PROG : 지도 제시]

Q0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1개 선택]

- 1) 기혼
- 2) 동거 (기혼)
- 3) 이혼
- 4) 별거
- 5) 사별
- 6) 미혼

Q04. 귀하는 모두 몇 명의 자녀를 두셨습니까? [1개 선택]

- 0) 자녀 없음
- 1) 1명
- 2) 2명
- 3) 3명
- 4) 4명
- 5) 5명
- 6) 6명
- 7) 7명
- 8) 8명 이상

Q0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1) 무학
- 2) 초등학교 중퇴
- 3) 초등학교 졸업
- 4) 중학교 중퇴
- 5) 중학교 졸업
- 6) 고등학교 중퇴
- 7) 고등학교 졸업
- 8) 대학교 중퇴

9) 대학교 졸업 이상

Q06. 귀하의 삶에서 종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1개 선택]

1	2	3	4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Q07. 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얼마나 자주 종교의식(현장 예배/불공/미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제외하고 말씀해주세요. [1개 선택]

일주일에 여러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종교적으로 특별한 날만	일 년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 미만	전혀 가지 않음
1	2	3	4	5	6	7

Q08. 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얼마나 자주 종교의식(현장 예배/불공/미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제외하고 말씀해주세요. [1개 선택]

일주일에 여러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종교적으로 특별한 날만	일 년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 미만	전혀 가지 않음
1	2	3	4	5	6	7

Q09.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1) 불교
- 2) 개신교
- 3) 천주교
- 4) 종교없음
- 5) 기타 ()

Q10. 현재 귀하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1) 그렇다
- 2) 아니다

Q10.1. [Q10의 1 응답자만] 누군가에 의해 고용되어 있습니까? [1개 선택]

- 1) 그렇다
- 2) 아니다

Q10.2. [Q10.1의 1 응답자만] 귀하가 하시는 일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1개 선택]

- 1) 상용직
- 2) 임시직
- 3) 일용직

Q10.3. [Q10.1의 1 응답자만] 시간제로 일하십니까, 전일제로 일하십니까? [1개 선택]

- 1) 시간제
- 2) 전일제

Q10.4. [Q10.1의 1 응답자만]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직접 입력]

_____ 시간

[PROG : Range 1~150]

Q10.5. [Q10.1의 1 응답자만] 귀하의 현 직장은 정부, 공기업, 사기업, 공익기관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개 선택]

- 1) 정부
- 2) 공기업
- 3) 사기업
- 4) 공익기관

Q10.6. [Q10.1의 2 응답자만]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가족종사자입니까, 고용원 없이 자영업을 하십니까,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하십니까? [1개 선택]

- 1) 무급가족종사자
-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3) 고용원을 둔 사업주

Q10.6.1. [Q10.6의 3 응답자만] 몇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직접 입력]

_____ 명

[PROG : Range 1~]

Q10.7. [Q10.1의 2 응답자만] 시간제로 일하십니까, 전일제로 일하십니까? [1개 선택]

- 1) 시간제
- 2) 전일제

Q10.8. [Q10.1의 2 응답자만]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직접 입력]

_____ 시간

[PROG : Range 1~150]

Q11. 귀하의 월 평균 총 소득은 세금을 낸(공제) 이후 얼마나 됩니까? 귀하를 포함한 모든 동거 가족들의 모든 수입 (예, 근로소득, 이자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 각종 보조금, 혹은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돈 등 포함)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히 모르신다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선택해주세요. [1개 선택]

- 0) 소득없음
- 1) 50 만원 미만
- 2) 50 만원 ~ 99 만원
- 3) 100 만원 ~ 149 만원
- 4) 150 만원 ~ 199 만원
- 5) 200 만원 ~ 249 만원
- 6) 250 만원 ~ 299 만원
- 7) 300 만원 ~ 349 만원
- 8) 350 만원 ~ 399 만원
- 9) 400 만원 ~ 449 만원

- 10) 450 만원 ~ 499 만원
- 11) 500 만원 ~ 549 만원
- 12) 550 만원 ~ 599 만원
- 13) 600 만원 ~ 649 만원
- 14) 650 만원 ~ 699 만원
- 15) 700 만원 ~ 749 만원
- 16) 750 만원 ~ 799 만원
- 17) 800 만원 ~ 849 만원
- 18) 850 만원 ~ 899 만원
- 19) 900 만원 ~ 949 만원
- 20) 950 만원 ~ 999 만원
- 77) 1000 만원 이상 (금액: _____)

Q12. 귀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1) 상의 상
- 2) 상의 하
- 3) 중의 상
- 4) 중의 하
- 5) 하의 상
- 6) 하의 하

[PROG: 아래 Q13의 A, B, C 유형 문항 Rotation], **[실험문항]**

A

Q13. 많은 사람들이 선거일에 아프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귀하는 지난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했다면) 당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1개 선택]

- 1) 투표하지 않았다
- 2) 투표할 생각이 있었지만 투표하지 못했다
- 3) 항상 투표했지만 지난번에는 투표하지 못했다
- 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5)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6)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7)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8) 정의당 심상정 후보
- 9) 기타 후보

B

Q13. 많은 사람들이 선거일에 아프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귀하는 지난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했다면) 당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1개 선택]

- 1) 투표할 생각이 있었지만 투표하지 못했다
- 2) 항상 투표했지만 지난번에는 투표하지 못했다

- 3) 투표하지 않았다
- 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5)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6)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7)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8) 정의당 심상정 후보
- 9) 기타 후보

C

Q13. 많은 사람들이 선거일에 아프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귀하는 지난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했다면) 당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1개 선택]

- 1) 항상 투표했지만 지난번에는 투표하지 못했다
- 2) 투표할 생각이 있었지만 투표하지 못했다
- 3) 투표하지 않았다
- 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5)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6)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7)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8) 정의당 심상정 후보
- 9) 기타 후보

Q14.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진보 혹은 보수가 되기도 합니다. 진보에 1점을 주고 보수에 10점을 준다면 귀하는 자신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개 선택]

진보									보수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Q15. 귀하를 포함해서 귀하의 집에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취학, 취업, 임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하고 말씀해주시십시오. [직접 입력]

동거 가족수: _____ 명

[PROG: Range : 1~20명]

Q16.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1) 대도시
- 2) 대도시 주변
- 3) 소도시
- 4) 시골 마을
- 5) 외딴 지역

Theme Bloc 2: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PROG : 아래 안내문 별도 페이지로 제시]

*지금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Q17-0. 귀하는 본인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걱정되십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1개 선택]

- 1) 매우 걱정된다
- 2) 어느 정도 걱정된다
- 3)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 4)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Q17-1. 그럼, 귀하 본인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1개 선택]

- 1) 많이 있다
- 2) 어느 정도 있다
- 3) 별로 없다
- 4) 전혀 없다

Q17. 귀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행 별 1개 선택]

	예: 경험했다	아니오: 경험하지 않았다
1) 나는 COVID-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있었다.	1	2
2) 나는 COVID-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있었다.	1	2
3) 나는 COVID-19의 경미한 증상이 있다/있었다.	1	2
4) 나는 COVID-19의 심한 증상이 있다/있었다.	1	2
5) 나와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은 경미한 증상이 있다/있었다.	1	2
6) 나와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은 심한 증상이 있다/있었다.	1	2

[PROG : Step by step]

Q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 별 1개 선택]

	예: 겪었다	아니오: 겪지 않았다
1) 나는 직장을 잃었다.	1	2
2) 나는 사업을 접어야 했다.	1	2
3) 나는 시간제 근로자가 되었다.	1	2
4) 나는 재택근무를 한다.	1	2
5) 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받는다.	1	2
6) 나는 예전처럼 출근한다.	1	2
7) 나는 내 자녀를 직접 돌본다.	1	2

[PROG : Step by step]

Q19. 귀하는 귀하나 귀하의 사랑하는 사람들(가족, 친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하게 고통받을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두렵다	다소 두렵다	두렵지도 두렵지 않지도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1	2	3	4	5

Q20. 귀하는 일반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하게 고통받을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두렵다	다소 두렵다	두렵지도 두렵지 않지도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1	2	3	4	5

Q21. 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귀하나 귀하의 사랑하는 사람들(가족, 친구)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통받을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두렵다	다소 두렵다	두렵지도 두렵지 않지도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1	2	3	4	5

Q22. 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일반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통받을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두렵다	다소 두렵다	두렵지도 두렵지 않지도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1	2	3	4	5

Q23.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못하고 있다	다소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	2	3	4	5

Q24. 귀하는 다음의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못하고 있다	다소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 중국	1	2	3	4	5
2) 일본	1	2	3	4	5
3) 대만	1	2	3	4	5
4) 베트남	1	2	3	4	5
5) 미국	1	2	3	4	5

6) 유럽	1	2	3	4	5
-------	---	---	---	---	---

[PROG : Step by step]

Q25. 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부적절하다	다소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다소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1	2	3	4	5

Q26. 귀하는 요즘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평소보다 호의적인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적대적인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십니까? [1개 선택]

적대적인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 (-3)			경우에 따라 다르다 (0)			호의적인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 (3)
-3	-2	-1	0	1	2	3

Q27. 귀하는 우리나라가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피해를 입지도 성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1	2	3

Q28. 코로나 종식 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예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행 별 1개 선택]

	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매우 동의함 (5)
1) 비대면 문화(재택근무, 외출/접촉 자제, 화상회의)가 지속될 것이다	1	2	3	4	5
2)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1	2	3	4	5
3) 경제적 이익보다 자연환경 보호가 우선할 것이다	1	2	3	4	5
4) 취약계층 보호 및 포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	2	3	4	5
5) 세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1	2	3	4	5
6) 정치적 이념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1	2	3	4	5
7) 남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1	2	3	4	5
8) 지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1	2	3	4	5
9) 방역 및 보건의료 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1	2	3	4	5
10) 개인에 대한 감시가 심화될 것이다	1	2	3	4	5
11)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Q29. 귀하는 지난 2 주 동안 아래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행 별 1 개 선택]

	전혀 없었다	일주일 미만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초조함과 불안함	1	2	3	4
2) 걱정을 멈추거나 통제할 수 없음	1	2	3	4
3) 우울감 또는 절망감	1	2	3	4
4)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1	2	3	4
5) 외로움	1	2	3	4

[PROG : Step by step]

[1, 2번 보기 로테이션, 실험문항]

Q30. 소셜 미디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병이 허위이며 모든 봉쇄조치가 과잉반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런 내용들을 믿으십니까? [1개 선택]

- 1) 믿는다
- 2) 믿지 않는다

[PROG: 보기 Rotation]

Q31.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를 TV나 신문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 매체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소셜 미디어를 가장 신뢰한다 (1)	(2)	둘 다 신뢰한다 (3)	(4)	전통적인 매체를 가장 신뢰한다 (5)
1	2	3	4	5

Q32. 귀하는 지난 1주 동안 코로나 관련 뉴스나 시사정보를 다음의 경로를 통해 얼마나 자주 보거나 들으셨습니까?

[행 별 1개 선택]

	전혀 없다	1~2일	3~4일	5~6일	매일
1) 텔레비전	1	2	3	4	5
2)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1	2	3	4	5
3) 종이신문	1	2	3	4	5
4) 라디오	1	2	3	4	5
5) 소셜미디어(유튜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등)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Q33.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행 별 1개 선택]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마스크는 남들을 위해 쓰는 것이다	1	2	3	4	5
2) 마스크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다	1	2	3	4	5
3) 마스크는 실제 감염예방효과가 있다	1	2	3	4	5
4) 마스크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1	2	3	4	5
5) 마스크는 서로 조심하지는 뜻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1	2	3	4	5
6) 마스크 착용으로 나의 일상이 많이 힘들어졌다	1	2	3	4	5
7) 마스크 착용 덕에 나의 일상 중 뜻밖에 좋아진 점이 있다	1	2	3	4	5
8) 공공의 건강을 위해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유보될 수 있다	1	2	3	4	5
9)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어야 공공의 건강이 지켜진다	1	2	3	4	5
10) 나의 건강상 안전을 위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1	2	3	4	5
11)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의 건강상 위협을 감수한다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Q34. 귀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1개 선택]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별로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Q34.1. [Q34의 1, 2 응답자]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방역물품이 부족하다
- 2) 방역수칙을 믿을 수 없다
- 3) 방역수칙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통제한다
- 4) 경제적 문제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한다
- 5) 의도하지 않게 수칙을 까먹는다
- 6) 코로나에 감염되면 치료받으면 된다
- 7) 질병과 생사는 운명에 달렸다
- 8) 나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 9) 기타 _____

Q34.2. [Q34의 3~5 응답자] 지난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실천한 방역지침은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시오) [모두 선택]

- 1)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씻기
- 2) 손소독제 사용
- 3) 마스크 제대로 착용
- 4)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2미터 거리두기)
- 5) 필수적인 경우 외에 야외활동 자제
- 6) 얼굴 만지지 않기
- 7) 위 보기의 아무것도 안함

8) 기타_____

[PROG : 7 선택 시 다른 보기 중복 선택 불가]

Q35.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부족하다면 어떤 사람들부터 접종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필수 2개 선택]

- 1) 영유아 및 임산부
- 2) 노약자
- 3) 미취학 아동
- 4) 초·중고 학생
- 5) 의료진
- 6) 기저질환자
- 7) 방역관련 공무원
- 8) 저소득층
- 9)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
- 10) 기타_____

Q36.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개 선택]

- 1) 2020년 말
- 2) 2021년 상반기
- 3) 2021년 하반기
- 4) 2022년 상반기
- 5) 2022년 하반기
- 6) 2023년 이후
- 7) 종식 불가능
- 8) 종식되겠지만 언제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Theme Bloc 5: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PROG : 아래 안내문 별도 페이지로 제시]

*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Q37. [Q04=1~8선택자만]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의 현재 나이가 될 때 자녀들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1) 훨씬 좋아질 것이다
- 2) 약간 좋아질 것이다
- 3)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 4) 약간 나빠질 것이다
- 5) 훨씬 나빠질 것이다

[PROG: Q04=0 자녀 없음 응답자 문항 SKIP]

Q38.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 별 1개 선택]

	매우 동의	동의	다소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반대	매우 반대
1)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 이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2	3	4	5	6	7
2)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불평 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6	7

[PROG : Step by step]

Q39.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행 별 1개 선택]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내 삶은 나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	1	2	3	4	5
2) 내 삶은 나보다 힘이 센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 다	1	2	3	4	5
3) 내 삶은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1	2	3	4	5
4) 내 삶은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뜻에 의해 결정된 다	1	2	3	4	5
5) 내 삶은 조상에 의해 결정된다	1	2	3	4	5
6) 내 삶은 초개인적 자연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Q40. 현재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귀하는 다음 각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혹은 불만족스러우십니까?

[행 별 1개 선택]

	매우 불만 족스 럽다 (1)	(2)	(3)	(4)	(5)	(6)	(7)	(8)	(9)	매우 만족 스럽 다 (10)
1) 건강 상태	1	2	3	4	5	6	7	8	9	10
2) 재정 상태	1	2	3	4	5	6	7	8	9	10
3) 사회 관계	1	2	3	4	5	6	7	8	9	10
4) 일과 삶의 균형	1	2	3	4	5	6	7	8	9	10
5) 전체 삶	1	2	3	4	5	6	7	8	9	10

[PROG : Step by step]

Q41. 다음은 귀하가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친숙한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행 별 1개 선택]

	매우 신뢰	다소 신뢰	거의 신뢰하 지 않음	전혀 신뢰하 지 않음
1)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1	2	3	4
2) 처음 만나는 사람들	1	2	3	4

[PROG : Step by step]

Q42. 귀하께서는 지난 4주 동안 교제가 부족하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1개 선택]

- 1) 전혀 느끼지 않았다
- 2) 거의 느끼지 않았다
- 3) 가끔 느꼈다
- 4) 자주 느꼈다
- 5) 매우 자주 느꼈다/항상 느꼈다

Q43. 귀하께서는 지난 4주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 (혹은 소외) 되었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1개 선택]

- 1) 전혀 느끼지 않았다
- 2) 거의 느끼지 않았다
- 3) 가끔 느꼈다
- 4) 자주 느꼈다
- 5) 매우 자주 느꼈다/항상 느꼈다

Theme Bloc 6: 사회 및 정치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PROG : 아래 안내문 별도 페이지로 제시]

* 사회 및 정치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Q44. 다음 각각에 대해서 귀하는 한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 별 1개 선택]

	매우 자랑스럽다	약간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1)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1	2	3	4
3) 경제적 성취	1	2	3	4
4) 사회보장제도	1	2	3	4
5) 과학기술의 성취	1	2	3	4
7)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	1	2	3	4
8) 군사력	1	2	3	4
10)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1	2	3	4

[PROG : Step by step]

Q45. 사람들은 때때로 한국의 향후 10년간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개 필수 선택] (첫 번째 우선순위와 두 번째 우선순위가 같을 수 없습니다.)

- 1) 국가의 질서유지
- 2) 정부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더 많은 발언권 부여
- 3) 물가 상승 억제
- 4) 언론 자유의 보호

Q46. 전반적으로 귀하는 다음의 각 사항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행 별 1개 선택]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다	아마도 정부의 책임이다	아마도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1)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1	2	3	4
2) 물가 안정	1	2	3	4
3) 환자에게 보건의료 제공	1	2	3	4
4)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1	2	3	4
5) 산업계 성장에 필요한 지원 제공	1	2	3	4
6)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1	2	3	4
7) 빈부간 소득격차 완화	1	2	3	4

[PROG : Step by step]

Q47. 다음은 여러 가지 정부지출 분야들입니다. 각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더 늘려야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귀하가 “훨씬 더 늘려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금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행 별 1개 선택]

	훨씬 더 늘려야	다소 더 늘려야	지금만큼 그대로	다소 더 줄여야	훨씬 더 줄여야
1) 환경	1	2	3	4	5
2) 보건	1	2	3	4	5
3) 치안	1	2	3	4	5
4) 교육	1	2	3	4	5
5) 국방	1	2	3	4	5
6) 노인연금	1	2	3	4	5
7) 실업수당	1	2	3	4	5
8) 문화예술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Q48. 정부가 국가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지지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 별 1개 선택]

	매우 지지	다소 지지	지지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1) 정부 지출 삭감	1	2	3	4	5
2)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2	3	4	5
3) 기업규제의 완화	1	2	3	4	5
4) 산업체의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지원	1	2	3	4	5
5)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사양산업 지원	1	2	3	4	5
6)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Q49. 사람들은 특정 서비스를 누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 제시된 분야 중 해당서비스를 누가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 별 1개 선택]

	정부	사기업/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협동조합	종교단체	가족, 친척 또는 친구
1)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	2	3	4	5
2) 노인 돌봄	1	2	3	4	5
3) 아이들을 위한 학교 교육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Q50. 기본소득 제도란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령, 소득수준, 노동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정부가 계속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중립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	2	3	4	5

Q51. 다음의 각 의견에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 별 1개 선택]

	매우 반대	약간 반대	반대도 찬성도 아님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1	2	3	4	5
2)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중산층에게도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	1	2	3	4	5
3)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Q52. 귀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하는 것
- 2)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오게 하는 것
- 3) 올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
- 4) 다른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을 전면 금지하는 것

Q53. 귀하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많이 납부한다	약간 많이 납부한다	적절하게 납부한다	약간 적게 납부한다	매우 적게 납부한다
1	2	3	4	5

Q54. 귀하는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적절한 수준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	2	3	4	5

Q55. 귀하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세금 부담이 매우 높다	세금 부담이 약간 높다	적절한 수준이다	세금 부담이 약간 낮다	세금 부담이 매우 낮다
1	2	3	4	5

Q56. 귀하는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정부 정책 (1)	(2)	(3)	(4)	개인 노력 (5)
1	2	3	4	5

Q57. 귀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보다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1)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 2) 적당하다
- 3)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Q57.1. [Q57의 1 응답자만] 복지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 복지 부문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축소되어야 할 두 가지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필수 2개 선택]

- 1) 저소득층 소득지원 (예: 기초생활보장 등)
- 2) 노인층 소득지원 (예: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 3) 장애인 지원 (예: 장애인 활동·재활 지원 등)
- 4) 보건 (예: 건강보험, 공중보건 등)
- 5) 가족·아동 (예: 아동 보육비 지원, 여성·아동폭력 예방,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
- 6) 일자리 (예: 청년고용 촉진 정책, 주부 재취업 프로그램 등)
- 7) 실업 (예: 실업자 지원 등)
- 8) 주거 (예: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 구입자금 저리 대출 등)
- 9) 기타 (_____)

Q57.2. [Q57의 3 응답자만] 복지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 복지 부문 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두 가지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필수 2개 선택]

- 1) 저소득층 소득지원 (예: 기초생활보장 등)
- 2) 노인층 소득지원 (예: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 3) 장애인 지원 (예: 장애인 활동·재활 지원 등)
- 4) 보건 (예: 건강보험, 공중보건 등)
- 5) 가족·아동 (예: 아동 보육비 지원, 여성·아동폭력 예방,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
- 6) 일자리 (예: 청년고용 촉진 정책, 주부 재취업 프로그램 등)
- 7) 실업 (예: 실업자 지원 등)
- 8) 주거 (예: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 구입자금 저리 대출 등)
- 9) 기타 (_____)

Q58. 귀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복지 정책 방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

- 1)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
- 2)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되 저소득층/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 3)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집중해서 제공

참고문헌

1. 문헌 자료
2. 기사 자료

1 문헌 자료

- 심재만(2020), 「하이브리드 한의학에 대한 행위이론가 서평」, 한국사회학, 54(3), 233-43.
- 최인수·윤덕환·채선애·송으뜸(2020), 「2021 트렌드 모니터」, 시크릿하우스.
- An, B. Y., & Tang, S. Y.(2020), “Lessons from COVID-19 responses in East Asia: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enduring policy instrument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50(6-7), 790-800.
- Davidov, E., Schmidt, P., & Schwartz, S. H.(2008), “Bringing values back in: The adequacy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to measure values in 20 countries”, *Public Opinion Quarterly*, 72(3), 420-445.
- Fischer, R.(2017), “From values to behavior and from behavior to values”, In S. Roccas & L. Sagiv (Eds.), *Values and Behavior* (pp. 219-235), Cham, Switzerland: Springer.
- Frink, D. D., Rose, G. M., & Canty, A. L.(2004), “The effects of values on worries associated with acute disaster: A naturally occurring quasi-experiment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1), 85-107.
- Hanel, P. H., Litzellachner, L. F., & Maio, G. R.(2018), “An empirical comparison of human value models”, *Frontiers in Psychology*, 9, 1643.

- Honigsbaum, M.(2019), “The pandemic century—A history of global contagion from the Spanish Flu to Covid-19”, Updated edition, London: WH Allen. 『대유행병의 시대』 (제효영 옮김), 로크미디어, 2020.
- Kang, J.(2020), “The media spectacle of a Techno-City: COVID-19 and the South Korean experience of the state of emergenc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9(3), 589-598.
- Kye, B., & Hwang, S. J.(2020), “Social trust in the midst of pandemic crisis: Implications from COVID-19 of South Korea”,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68, 100523.
- Kuhn, T. S.(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tin, J. L. & Lembo, A.(2020), “On the other side of valu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6(1), 52-98. doi: 10.1086/709778
- Parsons, Talcott.(1935), “The place of ultimate values in sociological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Ethics*, 45(3), 282-316.
- Sagiv, L. & Roccas, S.(2017), “What personal values are and what they are not: Taking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S. Roccas & L. Sagiv (Eds.), *Values and Behavior* (pp. 3-13), Cham, Switzerland: Springer.
- Schwartz, S. H.(2007), “Value orient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across nations”, In R. Jowell, C. Roberts, R. Fitzgerald, & G. Eva (Eds.), *Measuring Attitudes Cross-Nationally: Lesson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pp. 169-203), Thousand Oaks, CA: Sage.
- Shim, J-M.(2017), “The coordination of plural logics of action and its consequences: Evidence from plural medical systems”, *PLoS ONE*, 12(12), e0189841. doi: 10.1371/journal.pone.0189841
- Tavory, I. & Timmermans, S.(2013), “A pragmatist approach to causality in ethnograph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9(3), 682-714. doi: 10.1086/675891

- You, Jongeun(2020), “Lessons From South Korea’s Covid-19 Policy Respons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50(6-7), 801-808.
- Verkasalo, M., Goodwin, R., & Bezmenova, I.(2006), “Values following a major terrorist incident: Finnish adolescent and student values before and after September 11, 200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 144-160.
- Wolf, L. J., Haddock, G., Manstead, A. S., & Maio, G. R.(2020), “The importance of (shared) human values for containing the COVID-19 pandemic”,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3), 618-627.

2 기사 자료

- 시사인 보도자료(2020.06.20.),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편”,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2>
- Friedman, T. L.(2020.03.17.), “Our new historical divide: B.C. and A.C. — the world before Corona and the world after”,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17/opinion/coronavirus-trends.html>
- Welzel, Christian C., Boehnke, K., Delhey, J. Deutsch F., & Eichhorn J.(2020), “Values in crisis – a crisis of values? Moral values under the imprint of the Corona pandemic”, July 8, WAPOR news. <https://wapor.org/values-in-crisis-a-crisis-of-values-moral-values-under-the-imprint-of-the-corona-pandemic/>